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더욱 힘들어가는 이 시기에 주의 몸 된 교회를 보호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자의 총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8월 21일 (토) 제 1838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교회성장 멈춘 시대, 오순절교회 독주 주목

CT, 미 AG 최근 성장 원인에 대한 라이언 P. 버지 교수 연구 소개

요즘 대부분의 교단 총회/연회에서 지도자들은 계속되는 회원 감소의 도전을 인식하고 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올랜도에서 열린 총회에 18,000명의 등록 참석자를 모은 미국 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 AG)의 경우 이야기가 다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성회는 다른 대부분의 개신교 전통에서 볼 수 있는 교단의 쇠퇴 추세를 거스르며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조용히 성장해왔다. 회원이 3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하나님의 성회는 전국적으로 4배 이상 큰 규모인 남침례교회와 같은 교단에 비하면 아직은 작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성회는 많은 교단들 지도자 그리고 실제로 모든 기독교인이 보고 싶어 하는, 즉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소개한다(Assemblies of God Growing with Pentecostal Persistence: How has the 3.2-million-member denomination avoided decline?) 필자인 라이언 P. 버지(Ryan P. Burge)는 Eastern Illinois University 정치학 조교수로 공중정책/생활에서 종교역할전문을 맡고 있다.

SBC나 UMC 비해 주일예배 출석률 높고 공화당원 많아

하나님의성회가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해온 이유를 정확히 지적하기는 어렵다. 연구에 따르면 하나님의성회 회원은 10년 전보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이고 종교적으로 더 활발해졌지만 자체 수치에 따르면 놀라운 인종적 다양성을 달성했음을 나타낸다. 회원의 44%가 소수민족이다. 이러한 추세의 합류는 수치를 유지하는 능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가인 회원율을 보면 미국에서 가장 큰 두 개신교 교파인 남침례교회와 연합감리교회와 비교할 때 하나님의성회는 항상 그 수가 더 많다. 2005년에 미국에는 약 1,630만 명의 남침례교인이 있었고, 교단 자체 집계 따르면 거의 8백만 명이 연합감리교인이었다. 당시 하나님의성회 회원 수는 280만 명이였다. 그러나 2005년과 2019년 사이에 남침례교회와 연합감리교회 모두 교인 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2019년에 남침례교인은 1450만 명으로 11% 감소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2019

년에 총 650만 명의 회원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19% 감소한 수치다. 한편, 하나님의성회는 16% 이상 성장해 거의 330만 명의 회원을 기록했다. 다른 교단은 10년 넘게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성회에서 회원의 연간 증가율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단 3년에 불과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성회는 2005년 이후 거의 50만 명의 회원을 추가할 수 있었다. 수십 년에 걸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성회는 신유의 능력을 믿고 방언을 말하는 것과 같은 영적 은사를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재림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오순절 신학적 특징을 유지해왔다. 전통 중 교회 출석 패턴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면 하나님의성회가 직분과 교회 역할에 미지근한 예배자를 추가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대신, 데이터는 회중생활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동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평균적으로 미국 기독교인의 약 3분의 1이 매주 교회에 출석한다. 2020년에 협동선거 연구(the Cooperative Election Study)에 따르면 AG 회원의 57%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반면 남침례교의 49%와 비교된다.

교회성장 분석에서 범주가 정치적 당파성으로 전환될 때 남침례교회와 비교해 AG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보다 미묘한 이야기가 나타난다.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AG 당원의 약 22%가 민주당 원으로 확인된 반면 공화당원은 68%였다. 남침례교인들 사이에서는 그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지 않았다. 남침례교인의 약 3분의 1은 민주당원이었고 60%는 공화당원이었다.

지난 12년 동안 두 전통은 모두 오른쪽으로 흘러갔다. 2020년에는 전체 AG 회원의 거의 4분의 3이 자신이 공화당원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약 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3면으로 계속)



AG한국총회 39차 정기총회 첫날 목사안수식을 마치고 안수위원들과 임직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G한국총회 39차 정기총회, 총회장 김웅철 목사 선출

미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 39차 정기총회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60:1)”라는 주제로 8월 16일 저녁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18일까지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팬데믹으로 지난해 총회를 열지 못했던 AG한국총회는 둘째 날 임원선거를 통해 총회장에 김웅철 목사(늘푸른교회, 동남부)를 선출했다. 총회장선거는 1차에서 심상은 목사가 당선됐으나 고사해 2차로 4회의 투표 끝에 김웅철 목사가 58표를 받아 총회장에 당선됐다.

부총회장은 총회장 1차 투표에서 고사한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회, 서남부)가 총대 3분의 2지지로 선임됐다.

첫날 개회예배 및 목사안수식에서는 7명이 목사로 임직했다. 임직자는 조한진, 지정은, 박수자, 장에스더, 박자숙, 윤영숙, 정태은 목사다.

예배는 프라미스교회 담임 허연

행 목사 인도로 심상은 목사(서남부지방교회)의 대표기도 후 프라미스교회 찬양팀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설교는 조지 O. 우드 박사(WAGF 총재)가 맡았다.

우드 목사는 “임직식에서 대관식까지”(딤후4:6-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사도바울이 죽기 100일 전쯤에 쓴 것”이라며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치기 원하는가”라고 물고 “우리의 종말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대관식”이라고 도전했다.

우드 목사는 “하나님께 부여드림이 됐다고 말할 때 이는 ①제물이며 ②(선한) 싸움을 싸우며 ③(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하며 ④(말은 위탁 물들을 계속 유지하는) 수탁자(trustee)가 되며 ⑤(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고 말하고 “오늘은 임직식이지만 언젠가 훗날에는 대관식이 될 것을 기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푸른초장 한세영 목사



8·15 광복절과 정부수립(하) 정성구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번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역사/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bbook.org | cjb@jbc.org | www.jbc.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2021년 가을학기 입학안내 및 학사일정 ●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KAPC)의 총회 인준 신학교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장학금 지급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사일정
대학원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 3년
신학교 부설 평신도 여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대학원 목회학사(M.Div) 3년
기독교교육학사(M.R.E)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사(M.Miss) 2년
신학석사(Th.M) 2년 M.Div 학위 학력자
◇ 신학석사(Th.M) 과정은 설교학 전공으로 국내외 저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개설됩니다.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②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③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④ 신앙고백서 1부
⑤ 명함판 사진(2"×2") 2매
⑥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①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퀀츠장로교회 내 2층)
② 원서접수마감 : 2021년 9월 3일(금) 오후 6시
③ 입학시험 : 2021년 9월 4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④ 개강부흥회 : 2021년 9월 7일(화)~9월 9일(목) 오후 8시
⑤ 신입생 등록기간 : 2021년 9월 7일(화)~9월 9일(목) 오후 6시
⑥ 수업기간 : 2021년 9월 7일(화)~12월 16일(목)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917)733-7387

발행인 칼럼

작은 상자, 하지만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지난 주 교회로 배달된 작은 상자를 받았다. 상자만 작은 것이 아니었다. 무게도 아주 가벼웠다. 하마터면 많은 우편물 가운데 휩쓸려 한 동안 못 찾았을 뻔했다. 작게 쓰여 있는 내 이름을 확인하고 그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들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다. 주문하고 기다리던 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꼭 읽고 싶은 책이었기에 반가움이 더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작은 상자 안의 더 작은 책이 펼쳐놓은 내용은 크고 풍성했다. 작은 것이라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다. 작은 갈대상자 안에 담겨진 삼 개월 된 아이가 장차 모세가 아니었던가. 사내아이는 다 죽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 넘실대는 강물위에 던져진 아기는 작은 상자 안에서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가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주 또 다른 책 한권을 받아 보게 되었다. 책 제목 때문에 책장을 바로 열어 넘길 수 없었다. "아가야,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라는 제목이 눈으로도 들어오면서 마음에도 담겨왔다. 한국에서 베이비박스(Baby Box)를 운영해 오신 이종락 목사님이 지으신 책의 제목이 책을 읽기도 전에 왠지 나를 많이 힘들게 했다. 펼쳐보니 목사님이 유수한 필자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게 된 계기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셨다. 결혼 초기 많이 방황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다. 목사님은 여러 장애 아동들을 맡아 키우다가 2007년 4월 어느 날 새벽 3시 즈음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그 후 목사님이 여러 이유로 버려질 아이들을 작은 상자에 담아 놓기만 하면 어떡하든 잘 돌보는 베이비박스 사역을 시작해 한 바로 그 전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기를 교회 앞에 데려다 놔주세요." 교회 밖을 나가보니 굴비상자에 담긴 아이가 있었다. 그 굴비 냄새를 맡고 온 고양이가 상자를 해집고 아이를 핥기 직전 그 아이를 교회로 옮겼다. 까만 비닐봉지도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우유병 한 개, 먹던 분유 한 통, 기저귀가 다섯 개가 있었다고 한다. 목사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운유라고 지으셨다고 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는 김춘수 시인이 무명(無名)의 "꽃"에 빛깔과 향기에 맞게 이름을 붙여 불러주었던 것처럼, 이종락 목사님이 굴비상자의 아이를 "운유"라고 아름답게 불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아니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

베이비박스. 하지만 그 작은 상자 안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있다. 그 상자에는 그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담겨 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상자가 도처에 있다. 너무 작고 화려하지도 않아 무시코 지나치기 쉬운 작은 상자들. 가만히 귀 기울여보자. 그 안에서 신음같이 아주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 안에서 장차 모세가 울고 있다. 그 안에서 위험에 처한 운유가 울고 있다. 그 안에서 이름이 없어 서러운 무명(無名)의 꽃이 울고 있다.

아프간, 카불만 남았다!

BBC, 파죽지세로 아프간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 전략 소개, 향후 관측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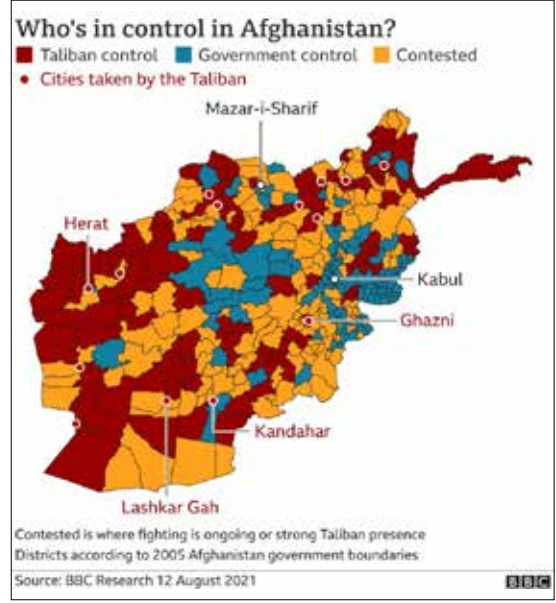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파죽지세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다. 탈레반은 최근 아프간 주요 도시인 칸다하르, 헤라트에 이어 헬만드주 주도 라슈카르가와 바드기스주 주도 칼라아이나를 점령했다.

탈레반 반군의 진격은 탄력을 받았지만 아프간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고전하고 있다. 최근 유출된 미국 정보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 카불은 수주 안에 함락되고 정부는 90일 이내에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12일 아프간 내 미국인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으며, 귀국을 돕기 위해 5000명의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은 지난 20년간 아프간 정부군을 정비하고 훈련했다. 수많은 미국과 영국 군 장성들은 아프간군을 강력하고 유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주장은 공허해 보인다. 아프간 정부군은 숫자상으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이 의심스럽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잭 와틀링 박사는 아프간 정부군은 실제 가용 병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군에는 장비 유지와 사기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프간 정부군들은 종종

또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불과 50km 떨어져 있는 로가르주 주도 폴리알람도 장악해 카불까지 입성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있다 (Mapping the advance of the Taliban in Afghanistan).

서 쓰였다. 마틴 박사는 "탈레반은 느슨하지만,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독립된 단체의 연합에 더



말해 줄 것"이라고 덧붙여 불길한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지원 규모만 보면 아프간 공군은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하지만 아프간 공군은 항공기 211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탈레반이 전투기 조종사만 의도적으로 노릴 때 이러한 문제는 두드러진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공군이 최근 라슈카르가에서 발생한 탈레반의 공습에 개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언제까지 이런 지원을 할지는 미지수다. 탈레반의 자금은 과거 주로 마약 거래에 의존했지만, 외부 지원도 받고 있다. 파키스탄이 대표적이다. 최근 탈레반은 정부군의 무기와 장비를 탈취했다. 미군 군용 지프차 험비, 적외선 야

정부군 30만 허세, 부패 간부들 '유령병사' 만들어 급여 횡령 미국이 제공한 정부군 무기 장비 탈취...선전전 사기극면 우세

로는 우위를 점해야 한다. 정부군의 규모는 행정상론 최소 30만 명이 넘는다. 육군, 공군, 경찰도 이에 속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표 수를 채우기엔 늘 어려움이 따랐다. 아프간군과 경찰에는 수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탈영자도 발생했다. 또 부패한 간부들은 잊지도 않은 '유령 병사'를 만들어 급여를 빼돌렸다. 이에 대해 미 정부 기관인 아프간재건 특별감사관실(SIGAR)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프간 정부군을) 잡아먹는 부패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아프간 병력에

무연고 지역으로 보내진다. 전투에 불참하며 군을 이탈하는 이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다. 탈레반의 병력 규모는 더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반테러 리즘센터에 따르면 탈레반의 핵심 전투 대원은 6만 명으로 추산되고, 각 지역에 퍼져 있는 대원과 지지자들을 다 포함해도 20만 명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전직 영국군 장교 마이크 마틴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탈레반을 단일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저서 '친밀한 전쟁(An Intimate War)'은 아프간의 격전지 헬만드주의 충돌에 대해

가깝다"고 봤다. 그는 정부군도 참여 동기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른 파벌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아프간이 격전의 역사를 겪은 만큼 가족, 부족, 심지어 정부 관리도 생존을 위해서라면 서슴치 않고 편을 바꾼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프간은 주로 미국 측으로부터 병사들의 급여와 장비 마련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아프간재건 특별감사관실(SIGAR)은 아프가니스탄 국가 안보에 880억 달러(약 102조 원) 이상이 쓰였다고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 돈이 잘 쓰였는지는 전투 결과가

간 조준기, 기관총, 박격포, 대포 등 미국이 제공한 장비가 포함됐다. 이미 소련 침공 시절부터 아프간에는 무기가 포화 상태였다. 그중 다소 열악한 장비로 탈레반은 무장했지만, 최신식 장비를 갖춘 상태를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탈레반이 미국과 영국군 공격에 사용한 급조폭발물(IED)은 치명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탈레반은 현지 정보력과 지형에 능한 것도 이들만의 장점이다. 탈레반은 각기 다른 구성원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이들의 움직임엔 합동 작전 계획이 있을 가능성도 보인다. (4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 과목 -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 안 내 - 지아익(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장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라홍채 목사

세미나 안내

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2. 70이레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교회성장 멈춘 시대...

(1면에서 계속)
 남침례교인 중 67%가 공화당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민주당원인 AG 회원의 비율은 그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었고 남침례교에서는 거의 7%포인트 감소했다.
 목회자, 교단지도자, 그리고 신도들은 항상 교단의 성장을 이끄는 데 관심이 있다. 특히 자신이 소속된 교단은 매년 성장하지만 주변 교회들이 쇠퇴할 때 특히 그렇다. 하나님의성회에는 현재 약 13,000개의 교회가 있으며 그 중 4분의 1 이상이 지난 10년 동안 형성됐다.
 교인 수가 증가한 이유를 한 가지만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데이터는 교회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교인의 절반이 주일출석을 하면 다른 교단으로의 이탈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교회 사역이나 예배에 대한 활발한 참여는 전통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전통을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AG 지지자의 절반 이상(53%)이 35세 미만이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매우 동질적이라는 사실은 교회 성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정치적 고려 사항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고 있다. 이 경우 AG 교회는 잠재적 개종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신구 이입자가 교회가 무엇



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마지막막으로 하나님의성회가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교단에서 벌어지는 내분은 대한 논쟁과 관심을 크게 피하면서 전국 언론에서 압박이 불 만큼 작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년스(Nones)'가 계속 증가하고 미국에 점점 더 많은

초교과 교회가 개척됨에 따라 하나님의성회가 그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12년 동안 전통적 개신교파가 거의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성회는 진정한 모델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공한 요인들의 조합을 찾는 것 같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면에서 계속)
 이어진 서약 및 안수식, 공포 및 임직증서 수여가 총회장 김명옥 목사 인도로 진행됐다.
 이어서 권필립 목사(복음의 빛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기도하며 아멘으로 나갈 때 성령이 인도해주시실 것"이라며 축사했다.
 권면은 이유용 목사(증경총회장)가 "영광스런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앙양심에 부끄럼 없는 경건 연습을 하며 추수일꾼으로 은사를 따라 전심전력하라"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조한진 목사(좋은씨앗교회)는 "팬데믹으로 늦게 안수를 받게 됐다"며 "팬데믹을 통해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겠다. 하나님과 선후배 동료 동역자, 성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물증정(임직자가 총회에게, 총회가 안수자에게), 공로패 수여(이성달 목사, 심

상은 목사, 김창만 목사), 헌금기도 강하나 목사(뉴저지평강교회), 광고, 축도 김남수 목사(프라이미스교회 원로, 증경총회장)로 진행됐다.
 17일 새벽 6시30분 아침예배, 식사, 성찬예배 후 회의가 진행돼 총회장 보고, 총무보고, 감사보고/회계보고, 각 지방회장 보고, 각 상임위원회 및 신학교 보고 후 임원선출로 이어졌다.
 김명옥 총회장은 "총회가 1년 이상 연기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변절되거나 와해해서는 안된다는 믿음으로 견디어왔다"며 "천국의 일원으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로 영혼구원에 앞장서고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소명자임을 재확인하자"고 환영사를 전했다.
 AG한국총회는 2021년 7월 말 현재 회원 총 315명(목사 241, 전도사 74), 교회는 총 94교회가 소속돼 있다.
 회계보고는 2019회계년도(2019.4-2020.3.31) 총수입 382,528.63달러, 총지출 383,324.70달러 이월금 25,565.69달러, 2020회계년도(2020.4.1.-2021.3.31.) 총수입



AG한국총회 개회예배가 프라이미스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AG한국총회 목사안수식에서 안수위원들이 임직자들에게 안수하고 있다.

331,580.11달러, 총지출 286,320.33달러, 이월금 70,825.47달러로 보고했다.
 신학교 보고는 2021년 7월 현재(온라인 포함) 신학부(BA) 1명, 신대원(MA) 2명, 신대원(M. Div) 13명, 평신도과정 2명 등 총 18명(남 5명, 여 13명)이 재학 중에 있다.
 한편 17일 저녁에는 부흥집회를 했다. 김창만 목사(동중부지방회장) 인도로 대

표기도 전홍식 목사(414코리안네트워크 사무총장), 특별찬양 A/G 여교역자회, 설교 김남수 목사("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행26:24-25), 봉헌기도 이성달 목사(동북부지방회장), 축도 이광희 목사(증경총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아침예배 후 식사를 마치고 폐회했다. 팬데믹으로 예년과 달리 관광기간은 갖지 못하고 각자 임지로 귀환했다. (유원정 기자)

시론

첨단 메타버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이동진 목사 (성화정보교회)

팬데믹으로 미루어졌던 2020동경올림픽 경기에서도 국가별 메달집계순위와 메달수상자들의 사연들이 소개되었다. 그런데 올림픽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도 점수나 서열이 매겨진다. 심지어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대형, 중형, 소형으로 또는 장로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직분이 서열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주 한국의 교계뉴스에 '빅데이터를 통해 본 언택트 사회의 설교선호도 분석'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근거한 기사가 올라왔다. 이 기사는 도표와 함께 '설교선호도에 따른 100위권 설교자'라든가, 어느 목사의 설교가 100위권 영상에 몇 개가 랭크되어 있다는 등의 서열매김 표현으로 관련내용을 소개했다.
 물론 논문의 연구로 나타난 통계를 말하고 있지만 이를 대하는 독자(교인)들은 아마도 '방송3사 시청률 비교'라든가 '가요톱10' 또는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을 보는 것같은 마음으로 그 기사를 대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박해와 핍박의 기간은 기독교의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내는 요소로 작용했다. 팬데믹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도 없지 않지만 역사는 이 또한 긍정적 변화와 성숙을 이끈 시간이었다고 후세에 전해줄 것이다. 팬데믹의 영향이 지역교회들의 실제적 운영은 물론 교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는 스나미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예배를 비롯해 그야말로 변화되는 상황들을 따라가기조차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그 속에서 교회는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는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로 인한 변화들은 '미래시대'가 가져올 변화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할 정도이다. 이 시대에 계속해서 던져지는 새로운 단어들을 따라가기에도 숨이 찰 정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버스라고 하면 시내버스, 관광버스 정도를 떠올리는 수준에 머물러있는데 메타버스(Metaverse, 1992년에 처음 사용된 meta와 universe의 합성어)라는 말은 도대체 어느 우주에서 사용하는 말인가 하고 있는데, 이미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세계와가 만나는 현실 속에 깊숙이 들어와있다.
 얼마 전 아이들이 구입한 VR게임을 해보았다. 잠수경oggles 큰 안경을 끼고 양 손에 리모콘을 끼고 눈앞에 펼쳐지는 야구장의 타석에 선 나를 환호하는 관중들의 함성이 입체적으로 들려오고, 배트를 들고 타석에 선 나는 진짜 야구선수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한동안 신나게 두 팔을 휘두르며 놀았다. 그런데, 게임을 마치고 보니, 함성과 수 만명 관중들은 어디 가고 나는 거실 한가운데서 혼자 춤추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현실은 어디인지 잠시 생각이 흔들리는 현상을 맛보았다. 우리는 아직 인공지능(AI)이라는 단어에서 겨우 전기밥솥이나 로봇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미 미래의 세계를 우리 눈앞에 끌고와있다. 이미 커다란 잠수안경같은 현재의 VR기기를 일반 안경 크기로 줄이는 기술, 가상세계 경험을 오감(五感)으로 느낄 수 있는 기술, 뇌의 생각만으로 아바타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까지 선보이면서, 의학에서는 이미 시각, 청각장애인들이나 팔다리 절단환자들이 정상인과 똑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의학에 접목시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래의 변화는 이미 이렇게 현실 속에 들어와있다.
 이 급속하고 엄청난 변화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추상적인 단어들을 어떻게 현실신앙 속에서 붙잡을 것인가? 아직도 참석숫자나 동영상 조회 숫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날 주님이 재림해오실 때 그 놀라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학은 신앙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과학 속에서도 침착하게 걸어가기야할 신앙의 길을 놓치지말아야 할 것이다. 변치않는 믿음이 여전히 필요하다.
 급속한 변화가 가져올 미래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 앞에서라도 시공(時空)을 뛰어넘는 전능자의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미래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으로 다가올지라도 교회는 결코 두렵지않은 날로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올림픽 근본 정신이 메달이 아니라 참가에 있다는 것을 아는 선수들은 경기의 승패가 아니라 자신의 그 경기장에 서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다. 신앙생활 또한 결코 숫자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나라에 참가함에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때 교회는 여전히 흔들리지않고 서있을 수 있을 것이다.
 djlee7777@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에 위치한 휴스턴 한인교회(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조교파, 자체성전보유,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 자격요건
 - 1)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사
 - 2) 이민교회에서 3년이상 담임목사(부목사 포함) 경력 있으신 분
 -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소지자
 - 4)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가능한 분
2. 제출서류
 - 1) 본인 및 사모의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가족사진 첨부)
 - 2) 목회 철학/비전 계획서 및 간증서
 - 3) 6개월 이내에 행한 설교 영상 2외분
 - 4)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5) 목사 안수 증명서
 - 6)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
3. 지원서류 접수 안내
 - 1) 제출방법: 서류는 청빙위원회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청빙위원회 email address : **kcch2019@gmail.com**
 - 2) 설교 CD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교회 우편 주소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Senio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3) 본 교회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하겠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외로만 사용될 것이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5) 지원 관련 문의로는 상기 이메일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이유

찰스톤의 제임스 덴트 (James Dent of Charleston) 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두 친구가 정육점을 열고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복음 전도자가 마을에

와서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다른 친구에게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도록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친구에게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받아들이냐고 물었다고 합니

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잘 들어, 레스터.” “나까지 종교를 갖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고기의 무게를 재겠는가?”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의 말을 생각해보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정육점을 운영했던 두 친구는 적당히 저울을 속여 장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예수님을 믿은 후 정직하게 저울을 재는 것을 본 것이지요. 그렇게 되자 다른 한 친구는 저 친구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저울을 속일 수 없게 되는 것이구나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사에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측 말고 복음

을 받아들이지 않은 친구의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는 종교를 갖는다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신이 명한 대로 사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 두 가지 이유 중 어느 것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이라면 우리의 삶에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직한 삶을 요구하며 그런 삶을 살 때 복을 부으신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 안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면 삶이 평탄해지고 행복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번의 정직은 많은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득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크레딧이 되어 돌아오게 되고 막힘없는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로 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레딧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의 빚을 잘 갚게 되면 크레딧이라는 것이 잘 쌓이고 나중에는 큰돈을 빌릴 수도 있고 큰 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좋은 크레딧은 상대방의 신임을 얻어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쌓는 크레딧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몇 안 되는 양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년이었던 사울 왕 앞에서 그 몇 안 되는 양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도 싸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였던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천한 직으로 알려졌던 목동에서 왕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자신을 어디에서 보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크레딧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도 사람 앞에서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귀한 크레딧을 쌓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한세영 목사

(메시야장로교회)



오늘날 미국교회를 찾아가면, 커다란 예배당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만 보이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준비와 관심은 급격하게 불어난 세속문화의 홍수에 비한다면 너무나 미약하였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주는 무엇입니까?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입니다. 실제 방주는 길이가 무려 약 150미터, 너비가 약 25미터가 되는데, 이렇게 만든 방주의 비율이 가장 견고하고 안정된 배의 비율이라 합니다. 현재 대형선박들의 설계비율이 이 비율과 아주 유사한데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습니다. 대형선박의 설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비율에 놀라는데, 그러나 전문가도 아닌 노아가 어떻게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날 우리도 밀려오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또 다음세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보고된 바나 리서치 그룹의 조사에 의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믿음의 세대가 과거 베이비부머세대에는 10%, X세대레이션(70-80년생)에서는 7%, 밀레니얼스(81-96년생)에서는 6%, 그리고 지금 Z세대레이션(97년생 이후)에서는 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충격적인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밀레니얼스에서 Z세대레이션으로 가면서

2% 밖에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고 무신론자의 비율도 7%에서 13%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좌악된 세속의 문화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성경의 진리로 가득 찬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화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성경적인 신앙을 철저히 규범화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생활화되도록 하며 그것이 계속해서 삶의 지

사를 보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때까지는 하나님의 배반하는 일로 징계를 받은 일이 간헐적으로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할 정도로 하나님 말고도 가나안족속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의 우상제단을 할지 않고 내버려둠으로 결국 우상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3절에서 말씀한 징계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이요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들이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이들이 그 다음 세대를 살릴 말씀의 방주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말씀의 방주를

함했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 다만 가나안의 풍요로운 세속문화에 빠져서 그저 정욕을 탐하는 일만을 하였습니. 그래서 이제는 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든 손으로 자녀들을 불붙고 놓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여호와를 택하겠다! 예수를 택하겠다! 너희도 그리 하라!”고 분명히 진지하게 유혹을 말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결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혹은 좋은 직업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대수가 아닙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면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같이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자녀들의 신앙도 결단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의 규범과 규례들을 부모의 유혹으로 만들어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경을 기록해서 전수하며 지킴으로써 말씀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경을 기록해서 전수하며 지킴으로써 말씀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경을 기록해서 전수하며 지킴으로써 말씀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경을 기록해서 전수하며 지킴으로써 말씀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이 험한 세대 가운데서 어느 날 길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갈 바를 모를 때 만일 그들이 하나님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성도여러분,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 결코 어떤 세파에서 부서지지 않고 좌초되지 않을 말씀의 방주를 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은 일으키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도록 자녀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신신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더라도 가르치시고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지표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후치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어느 때가는 반드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syhan91@hotmail.com

다음세대를 위하여

사사기 2장 2-10절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심각할 정도로 변질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이것을 어겼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의 때에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월에 모으고 놀라운 신앙의 유언을 하였는데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는 유언까지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로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 지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을 보면,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울레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방주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겸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증거가 되도록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어도, 적어도 그 다음세대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일을 계속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아직도 다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상황이 2장에 오면서 이처럼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였던 것일까? 그것은 여호수아 다음세대가 그 다음세대를 말씀으로 지킬 방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세대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려서 경

고 진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유언과 같이 엄중한 권고로 자녀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들을 일일이 잘 지키도록 가르치고, 또한 자녀들에게 몸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성공지향주의나 물질만능적 사고가 가정의 대화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여러분의 자손만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설령 여러분이 희생을 한다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반드시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 사고를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향락에 빠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섬기며 자랑할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다음세대를 향한 소망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 나래에 대한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어야

고 밝혔다. 마틴 박사도 같은 견해다. 그는 반 탈레반 군벌 출신이자 전직 부통령인 압둘 라시드 도스툼이 마자르-이-샤리프의 방어에 기용된 것이 그 예라고 했다.

압둘 라시드 도스툼은 정부와 협상중이다. 이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 지난 11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방문해 방어태세를 살피기도 했다. 여름 전투기가 끝나면 아프가니스탄에는 겨울이 찾아온다. 그때는

지상군의 작전 수행이 어려워진다. 교착 상태가 올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정부는 카불과 몇몇 대도시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탈레반이 분열된다면 전세는 역전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평화, 안보, 안정을 가져오려는 미국과 나토의 노력은 예전에 소련의 노력이 그랬던 것처럼 헛된 것으로 보인다.

파죽지세...아프간...

(2면에서 계속)

전 영국 육군 준장이자 현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SS)의 선임 연구원 벤 배리는 탈레반의 성공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나도 이보다 더 나은 전략을 내놓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말했다. 배리 연구원은 현재 탈레반은 자신들의 거점인 남부가 아닌 북서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주도들은 연이어 탈

레반이 장악하고 있다.

탈레반은 또한 주요 국경 통과 지점과 검문소를 장악해 자금난에 허덕이는 정부로부터 돈을 갈취했다.

이들은 또한 주요 정부 관료, 인권 운동가, 언론인을 제거해 나가기도 했다. 이렇게 탈레반은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말살해나갔다. 아프간 정부의 전략은 더 파악이 어렵다.

탈레반이 점령한 땅을 모두 탈

환하겠다는 이들의 약속은 점점 공허하게 들린다.

배리 연구원은 정부가 대도시만은 장악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헬만드주의 라쉬카르 가 함락을 막기 위해 아프간 특공대가 이미 배치됐다.

아프간 특수부대의 규모는 약 1만 명 정도로 비교적 적다. 이들의 병력은 이미 소진될 대로 됐다.

탈레반은 또한 선전전과 사기 측면에서도 우세를 보인다. 배리

연구원은 탈레반이 진격에 탄력을 받으면서 사기가 올라갔고, 단결심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아프간 정부로서는 현재 상황이 확실히 암울해 보인다.

그러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와틀링박사는 정부의 상황이 비관적인 건 사실이지만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프간 정부가 주요 부족 지도자들을 교섭할 수만 있다면 교착 상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 사람의 자연인

지난주 한국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이다. 2002년 월드컵에서 영웅이었던 무척 신앙이 좋았던 선수가 일반 TV에 등장했다. 당시를 기억해보면 무척 좋은 마음이 들었다. 끝이 터지면 그는 제일 먼저 앞드려 무릎으로 기도하고, 기독교방송의 간증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7년 세월을 은둔하면서 자연인으로 살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에 소개 되었다. 산에다 방송을 짓고 사는 것, 취향 따라, 워낙 다양한 세상에 그럴 수도 있는 삶의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드는 생각은 "길을 잃었나? 길을 잃은 건가? 길을 잃었구나!"하는 생각이었다. 한마디로 왜 저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체화된 특별한 감각의 반응이 그러했던 것 같다.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접하다 보면 그가 하는 말투, 자세, 눈빛 등 이런 것들이 상대의 입술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언어로 전달되는 것을 느낀다. 쉽게 판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늘 성경연구와 사

로 닳고 살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그런 생각들 속에 조금 더 영상을 보노라니,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온갖 종류의 담금술을 담아 두고서는 그의 치적들을 자랑하는 것이다. 더불어 동네사람들과도 어울려 막걸리 한잔씩 하는 모습이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말로 튀어나오자, 옆에서 다른 이들이 한마디씩 거든다. '목사님 뵙지요. 자기 인생인데,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겠지요?', '목사님 술 한잔 하는 것 가지고 뭐 그러세요. 요즘 세상에' 물론 이분들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다. 게다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다.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하니, 좋은 수면법이라며 추천한다. '와인 한잔 하고 꼭 주무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술 담배 가지고 뭘 신앙을 논합니까? 술 담배 하면서도 신앙인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스피셜 목사 같은 사람은 골초였습니다.' 이리다가는 노아 할아버지도 애주가였다는 말까지 나올만한 상황이어서 속히 말의 매듭을 지었다.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다가 주님의 관정에 놀란다고 하지 않았던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는 말에 일순 긴장감을 가진다. 주어 주어 한다고 모두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세히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니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래 다녀서 교회생활이 익숙했던 것이라는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나중에 주변 사람들의 추천과 권유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그들이 왜 관을 쓰고 있는지 모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을 기를 부여 씌워 주신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지만 그가 하는 일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었는데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의 타이틀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율산의 어느 교회가 새가족 초청을 하고 오랜 세월 공을 들여 무당 점쟁이를 전도했는데 그 교회 권사들 가운데 그분의 고객이 있더라

문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 제일 약한 막둥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부모와 형제들을 전도하고, 마침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첫 세대가 되는 것도 보았다.

기준과 상대주의 관점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기독교가 흥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목도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그 기준을 지나치게 상대주의적인 관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어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한다. 좀 더 나아가면 '무엇인가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라는 포용성을 내세우면서 진리의 잣대가 될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다. 굉장한 포용력을 갖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리의 기준이 선명하지 않고 선명하지 못한 기준으로 문제를 대하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 결국 그 공동체가 해를 입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삶도 흐려지는 것을 본다. 지나친 관용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한국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한국 법원에서 사형언도는 내리되 실제 집행은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형제도의 찬반의 이유와 친구와 성경은 사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애나하임에서 최동석

A: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2000년 7월 24일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고 유네스코 한국 지부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할 약속 중에 하나로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의 이승구 교수의 '공적신학'이란 책을 보면 한국의 경우 1990년대에는 77%가 사형제도를 찬성했고 2000년에는 54%만이 사형존치론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1966년에는 42%가 찬성했으나 2000년에는 66%가 찬성했다고 말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사형제도의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의 수가 더 많습니다(p.131).

먼저 사형제도의 옹호론을 주장하는 이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신원하 교수가 쓴 "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문제들"이란 책에는 "사형제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흉악한 범죄를 억지(Deterrence)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동일한 흉악범에 의해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예방(prevention)효과와 더불어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를 구현하는 법 정신과 국민의 감정을 충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돼 있습니다(p.168). 반면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인간의 기본권이자 천부권인 생명권을 앗아감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간적인 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오로 출

회개 기회 박탈한다고 하나 성경은 사형제도 존치 옹호

판사에서도 홈페이지에 카톨릭신문에 실린 글을 요약하면서 사형제도는 (1)회개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반인륜적 제도이고 (2)억울한 죽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3)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계적인 추세라 할지라도 친구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창9:6에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칼빈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손상될 때 자신이 손상 받는 것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형을 선언하셔서 사람들이 살해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한 금령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9:6은 살인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모독한 것이기에 살인자에게 사형을 명하신 것입니다.

(2)신약에서는 롬13:4 말씀 즉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칼이란 말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존 스토틀은 사형의 상징으로(as symbol of the capitol punishment) 의도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존 머레이도 "칼을 죽음 즉 사형"과 연관시켜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죄책 있는 자들을 죽음으로 형벌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와 성경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는 흉악범이 복음으로 감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형이 없는 종신형이나 무기징역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복음의 역사 변화의 능력

- 가짜와 진짜, 신앙의 확장성, 단순함

람을 대하는 일을 하다보면 직감하는 것이 많이 틀리지 않음을 보게 된다. 인간에 대한 이해의 틀이 넓어지면서 얻게 된 생각들이다.

물론, 이런 방식의 폐해도 상당하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다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들어도 성경이 말하는 답이 뻔한데 왜 시간을 낭비할까? 하면서 정확한 답을 빨리 내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옆에서 이를 보던 아내가 거들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배려'라는 것이다. 아내의 긴 설득에 동의가 되어서 올 한해는 한해의 화두를 '경청(傾聽)'이라고 짓기도 했다. 암튼, 목사가 무당 점쟁이는 아니지만 사람을 보면 언뜻 느껴지는 정황 속에서 생각되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음을 본다.

사연을 넘어서는 기준

사연이 있을 법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 자연으로 귀의할 만큼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여러 가지 사연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한가지, 아무리 수만 가지 사연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 성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 하였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따로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결같이 더욱 귀한 은혜를 끼치고, 영적인 유익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삶에 대한 기대감들이다. 물론 인간이 연약할 수 있다. 주의 제자들도 수없이 넘어졌지 않은가? 그러나 최소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차라리 그런 모습을 자랑스레 광고할 이유는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간증이 있는 신자와 가짜를 헛갈리게 하는 선명하지 못한 삶이 모습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념조차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여진 상태라는 것이다.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하니, 정말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많은 가짜, 신앙의 확장성

성경은 그러한 이들이 소수가 아니라, 종말시대가 되어 갈수록 정말 많다고 예언한다. 종말시대에 홍수 날에 파도 같은 세파에 휩쓸려가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다. 자신이 가짜인줄 알고 진짜처럼 행세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자신을 진짜로 착각하는 가짜들의 인생이다. 특별히 그런 이가 한 가정을 책임진 가정이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하지 못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일이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개인주의에 머물 수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행16:31)고 말씀하셨다. 기독교 신앙의 확장성을 말씀하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마침내 그 가정과 가문이 변화될 것, 더 나아가 그가 속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실제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간 때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많은 핏박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마침내 그 가정과 가문을 전도하고, 저들 가문에서 목사 선교사 교사 등의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일꾼들이 배출되는 믿음의 명문가문들이 이

자신의 삶에 쉽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삶의 해이와 더불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마저도 쉽게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것을 본다.

그래서 이제는 종말 시대가 되어갈수록 성경을 꼭꼭 눌러 읽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를 놓치기 쉽게 되어 버렸다.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 제대로 진리성을 드러내려면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다. '주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와 네 집(네 삶의 지경과 만나는 이들에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너무 슬픈 현실이다. 진리의 말씀은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게 믿고 반응하면 될 일인데 너무 많은 사상들이 진리를 훼손하며 자기 방법으로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진 분들이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의 삶에 천착하는 일들로 인해 복음의 확장성을 장애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더욱 복잡해진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스스로 복잡한 인생을 살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더 진리 앞에 간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영혼을 장애하는 모든 것들을 힘써 대적하며 오직 그리스도도 충만하게, 말씀에 대해 선명하게 복종하며 당당하고 당차게 살아가야 따름이다. Simple Life, High Spirituality.
davidnjon@yahoo.com

진짜와 가짜의 혼동

오늘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종말시대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와 자신을 참된 주님의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갈보리장로교회는 미국 Missouri 지역에 위치한 미국장로교단(PCA)소속 교회로서 1991년 설립한 이후 2002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30년 동안 복음전파를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 자격**
- 미국장로교회(PCA)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 목회경력: 5년 이상 / 이민목회 경험자 / 나이:40-55세까지)
 - 이중언어 (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 최근 설교동영상 (CD, DVD, Web address)
 - 자기 소개서 (목회소명/목회경험/신앙고백/신앙간증/성경배경/가족소개/가족사진)
 - 추천인 1인의 추천서
 - 목사 안수증 및 학위 증명서
 - 제출 마감일: 2021년 9월 19일
 - 제출처: chappark01@gmail.com
 - Calvary Presbyterian Church 110 Susie Dr, St. Robert, MO 65584

- 기타**
- 1.서류는 email 로만 접수합니다(Word, PDF).
 - 2.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3.청빙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갈보리장로교회 청빙위원장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광복(光復)하자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지를 끝낸 8월 15일을 대한민국은 광복절(光復節)이라고 부른다. 광복은 빛이 돌아오다, 또는 돌아왔다는 의미다. 나라를 되찾았다는 말이며 어둠이 물러갔다는 의미기도 하다.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아직도 그 후유증 혹은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먼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일본의 피해자라는 의식이며 둘째는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위안부 문제가 대표적이다. 손바

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과 같이 일본은 여전히 세계의 눈총과 질타에도 해볼 태연 해보라는 식으로 경제력을 앞세운 후안무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기에 한국은 일본을 숙적 혹은 앙숙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참으로 질긴 악연이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4-16)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빛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빛 된 자들이 수치스럽게 천만이 넘는다. 인구의 5분지 1이 빛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어둠이 매우 짙다. 어둠은 빛이 비치면 사라지게 되어있다. 어둠이 존재하는 것은 빛이 비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다. 빛이어야 할 천만은 도대체 어디에 감춰져 있는 것일까?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여 말 아래에 숨어버린 듯하니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격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빛을 자처한 후보들이 수십 명에 달한다. 여기에도 아이러니가 심하다. 후보로 나서기 전에는 지지율이 매우 높아 차기 대통령으로 확실히 되던 후보가 탈락

털리다보니 이제는 빛보다 어둠이 더 짙어지고 있다. 후보로 공식화하기 전의 지지율은 수박겉핥기와 다름이 없었다. 쪼개보니 덜 익었거나 혹은 너무 익어 냄새가 풍풍 인다. 그런 것들을 두고 제 팬거리의 이전투구도 가관이다.

대한민국의 빛이 되겠다던 공언들은 냄새나는 과거의 전력으로 인해 못매를 맞고 있거나 덜 익은 쫄면으로 인해 설화(舌禍)를 자초하며 날뛰기도 한다. 어디가 끝일지는 모르나 이러다가는 빛은 고사하고 어둠속으로 함몰될 여지도 다분해 보인다. 참 불행한 한국, 대한민국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정황에 대해 빛이어야 할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말 아래에서 올라와야 한다. 광복해야 한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 돌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박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분명히 천명하신 까닭이다. 세상의 어둠

과 그들에 대한 책임이 성도에 게 있다는 말이다. 유명한 가수가 부른 가사에 테스트! 세수박겉핥기와 다름이 없었다. 쪼개보니 덜 익었거나 혹은 너무 익어 냄새가 풍풍 인다. 그런 것들을 두고 제 팬거리의 이전투구도 가관이다.

코로나19는 점점 더 악화일로다. 바이러스들이 몇 단계씩 변이가 되어 기존의 백신들조차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코로나가 창궐한 직후부터 어쩌면 코로나는 종식될 수 없다고 예측했었으나 이제는 그런 단계도 훌쩍 뛰어넘어 인류의 치명적인 재앙으로 점쳐지고 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발등의 불로 시급함에도 대한민국의 천만 성도는 빛을 감추기 위해 말 아래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중함에도 태연자약하게 K방역을 내세우며 오만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면 성도는 그런 세파에 사대질을 더하기보다 내 탓이오

를 외치며 가슴을 쳐야한다. 어둠은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불행이 다 포함된다. 성도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침에 떠올랐다가 저녁에 지는 태양의 빛이 아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성도도 스스로 빛을 발해야 한다. 따라서 성도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야 한다. 빛을 이길 어둠은 없는 까닭이다.

일제의 침탈로 인해 36년간이나 나라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8·15의 대한민국 광복은 이미 이뤄졌으니 이제는 성도들이 광복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빛이 집안(세상) 곳곳을 밝히 비추도록 말 아래에서 나와야 한다. 주님은 또 다시 대한민국의 천만성도에게 촉구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인 성도는 이제 어둠의 세상에 비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광복하자. 빛을 회복하여 어둠을 물리치자.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정기적으로 성경 읽는” 청소년 10% 미만

미국인 Z세대 중 10% 미만이 정기적으로 성경 읽기에 전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성서공회(ABS)가 10일 발표한 ‘2021년 미국 성서 현황 보고서’는 현재 9세에서 24세 사이인 Z세대가 “성경과 불안정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성서공회는 1월 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3,354명과 15~17세 미만 청소년 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15-17세를 “Z세대 청소년”, 18-24세를 “Z세대 성인”으로 구분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Z세대 청소년 중 9%만이 성경 읽기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경 몰입(Scripture Engaged)”에 속했고, Z세대 성인 중 14%, 밀레니얼 세대 중 23%가 이에 해당했다. 반면 Z세대 청소년의 47%는 “성경과 무관(Bible Disengaged)”한 것으로 판명됐다.

보고서는 “오늘날 미국 성인의 절반은 1년에 최소 서너 번은 성경을 사용하는 ‘성경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Z세대 청소년은 34%만이, Z세대 성인 또한 43%만이 성경 사용자로 나타났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성경 사용자 비율이 Z세대보다 높아 전국 평균(49%)에 근접했다.

성서공회는 2020년 코로나 대유행과 인종차별 반대 시기에, Z세대 청소년들의 성경 읽기가 줄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0년의 혼란은 십대들 사이에서 더 많은 성경 사용을 촉발시키지 못했다”며 “Z세대 청소년(27%)이 Z세대 성인(19%)이나 밀레니얼 세대(9%)보다 성경 사용을 줄였다고 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최근 1년간 성경 사용이 증가했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았으며(29%), Z세대 성인(27%)과 청소년(21%)보다 높았다.

추가적으로, 미국인 Z세대는 “평균보다 낮은 성경 참여” 외에도 “성경의 가치에 대해 상당히 적은 확신”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이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 Z세대(15-17세)의 청소년은 그들 세대의 성인보다 동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노년층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Z세대 청소년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의견을 계속 형성할 수는 있지만, 전체 Z세대는 여전히 밀레니얼 세대보다 자유(37% 대 27%) 및 화합(29% 대 20%)과 같은 문제와 성경과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성서공회는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시기인 Z세대가 연구의 주된 초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 단체의 여러 설문조사에서 큰 영적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8년 1월, 미국 바나리서치그룹은 보고서에서 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및 무신앙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2018년 조사에서 Z세대 청소년의 35%가 자신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무신앙이라고 답한 반면, 밀레니얼 세대 및 X세대는 30%, 베이비부

머 세대는 26%가 그 같이 답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종교자유 법률단체 ‘베크(Becket)’이 발표한 종교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이전 세대보다 신앙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크 보고서는 Z세대 응답자의 74%가 팬데믹 기간에 신앙이 “적어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느꼈으며, 이는 모든 세대 평균인 62%를 웃돌았다.

또 Z세대는 51%가 신앙을 “극히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던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31%이 그 같이 답해 모든 연령 중에서 가장 낮았다.

세계적 선교역사학자, 앤드류 윌즈 박사 별세

세계적 선교역사학자이자 세계 기독교학 개척자인 앤드류 윌즈(사진) 박사가 지난 12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그는 교회는 항상 사회 변화와 함께 ‘번역’(translation)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기독교의 중심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이동하고 있음을 일찌감치 예견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공에 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윌즈 박사에 따르면 교회는 번역과 타문화와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경쟁해 나가야 한다. 이는 기독교 역사가 항상 교차 문화적 접근을 거치면서 당대 문화 속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시대 환경과 문화에 적극적으로 교섭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쇠퇴할 수 있다고 봤다.

세계 기독교 중심의 이동에 대해서는 1900년까지 세계 기독교인의 80%가 유럽과 미국에 살고 있었지만 100년 후엔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기독교회의 에너지 중심이 전세계에 널리 분산됐기에, 교회의 확장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윌즈 박사는 기독교는 역사의 쇠퇴와 부흥 속에서 확장을 거듭해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 지역의 쇠퇴는 전체 기독교의 쇠퇴를 의미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아무에게도, 어떤 지역에서도 점령되지 않는다”며 “항구적 기독교 국가란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한 기독교 문명 국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 기독교회의 에너지 중심이 전세계에 널리 분산됐기에, 교회의 확장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윌즈 박사는 1957년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포라베이대학에서 교회사 교수로 사역했고, 나이저리아대학에서도 교수로 봉직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아프리카 교회의 역동성과 세계 기독교의 변화를 일찍부터 감지했다.

1966년 영국 에버턴대 스코틀랜드선교연구소 소장을 거쳐 에든버러대에서 비서구 세계기독교 연구센터를 창설해 초대 소장을 지내면서 기독교 중심의 이동을 꾸준히 연구해왔다.

2008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그는 “세계 기독교의 지도력을 발휘했던 나라들은 언제나 중심에서 있을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계 기독교의 중심으로 부상한 한국교회도 만족할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석학들과는 달리 책을 거의 펴내지

않았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선교운동(1996)’과 ‘교회사 속의 교차 문화 진전(2002)’을 빼면 나머지 두 권은 공저로 펴냈다. 윌즈 박사는 책이 아니라 그에게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 의해 많이 알려졌다.

독립운동가의 애국가 ‘올드랭사인’ 은 찬송가

봉오동전투의 영웅 흥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고국 품에 안겼다. 15일 경기 성남공원에 그의 유해가 도착하자 ‘올드랭 사인’(Auld Lang Syne) 선율이 울려 퍼졌다. 이 곡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애국가’였다. 이 애국가는 당시 기독교 복음주의와 애국정신이 결합한 찬송가이기도 했다. 1907년 윤치호가 역술한 찬송가집인 ‘찬미가’에 수록됐다.



올드 랭 사인 애국가는 3·1운동에서도 불렀고, 3·1운동 이전인 1914년 만주의 민족학교에서 발간한 음악 교과서에도 ‘국가(國歌)’라는 제목으로 수록됐다. 당시 다양한 버전의 애국가가 존재했지만 유독 올드 랭 사인 애국가가 한민족에게 사랑을 받았다.

원래 올드 랭 사인은 스코틀랜드 구전 민요이자 찬송가이다. 시인 로버트 번스가 1788년 지은 시를 가사로, 윌리엄 실드가 정리한 곡이다. 영미권에서는 ‘석별’이란 뜻의 축가로 쓰인다. 스코틀랜드어인 올드 랭 사인은 ‘오랜 옛날부터(old long since)’라는 뜻이다.

감리교 찬시자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1741년 이 민요 곡에 가사를 붙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Father, I stretch my hands to Thee)’라는 찬송가를 지었다. 현재 한국교회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찬송가 280장이다. 회개와 용서의 주제를 담고 있으며 1절 가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로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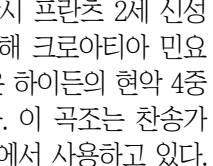
스코틀랜드 민요 중에서는 ‘애니로리’(Annie Laurie) 역시 찬송가로 사용되고 있다. 애니로리는 스코틀랜드의 J. 스콧(1810-1900) 여사가 작곡한 일반 민요곡으로,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사용됐다. 이 찬송가 가사는 19세기 미국 감리교 목사이자 군목이었던 존 H 로지어(Lozier)가 작사했다.

한편 찬송가 선율과 국가(國歌)가 같은 나라들도 있다. 영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영국 국가는 ‘하나님 우리 자비하신 여왕을 구하소서’(God Save our gracious Queen)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느냐’와 같은 곡조이다. 한국에서 이 찬송은 1908년 최초의 장로교, 감리교 합동 찬송가인 ‘찬송가’ 206장으로 채택됐다.

독일 국가는 ‘독일의 노래’로 불린다. 곡조는 프란츠 J. 하이든이 1797년 작곡한 ‘제왕 찬가’를 사용하고 있다. 하이든은 당시 프란츠 2세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생일을 위해 크로아티아 민요를 편곡해 헌정했다. 이 곡은 하이든의 현악 4중주 ‘황제’ 2악장과 같았다. 이 곡조는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 가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의 존 뉴튼이 작사했다.

팬데믹 기간 출생 신생아 평균IQ 낮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의 지능이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의 외부 접촉 기회가 줄어든 데다,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도 늘어 아이와 상호작용을 충분히 하지 못한 영향이다.

영국 가디언은 12일 한 미국 대학의 연구를 인용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언어, 운동 및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팬데믹 이전 10년(2011-2019년)에 태어난 3개월-3세 영유아의 IQ 평균값은 100 정도인데, 팬데믹 기간(2020-2021년)에 태어난 영유아의 IQ 평균값은 78이란 것이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선 데오니 미국 브라운대 소아과 부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주요 인지장애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런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연구진은 문제의 원인으로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이 줄어든 상황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한 부모들이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와 접촉할 기회가 줄어든 것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연구진은 특히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인 가정의 아동일수록 더 큰 IQ 점수 하락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데오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사회적 지원과 실업 수당에 후한 미국의 부유한 지역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나쁜 지역에선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임 발표 때도 변명한 쿠오모

앤드루 쿠오모(63) 미국 뉴욕주지사가 결국 사임하기로 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우군마저 자신의 탄핵을 찬성하는 분위기로 돌아서자 퇴진을 선언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10일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나는 뉴욕을 사랑하고, 뉴욕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 업무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퇴 시점은 14일 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러나 “이번 조사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다만 “정략적 공격에 맞서 싸우면 주정부가 마비될 수 있다”며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한 발짝 물러나 주정부가 통치권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나는 누구와도 선을 넘은 적이 없다. 그러나 선이 어디까지 다시 그려졌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대적 문화적 변화가 있었지만 나는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너무 가깝게 생각했다. 불쾌한 마음이 들게 했다”고 말했다. 사과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자신의 행동은 ‘예정 어린 정치 스타일’이었고, ‘동료애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는 기존 입장은 바꾸지 않은 셈이다.

사임 발표 당시 쿠오모 지사는 이미 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과 뉴욕주 의회의 지지를 잃었고, 유권자도 그의 사임을 원했다”고 지적했다. 퀴니피악 대학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뉴욕주 유권자 70%가 그의 사임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54%는 그가 여러 여성을 성희롱했다고 봤고, 55%는 형사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쿠오모 지사의 남은 임기는 케시 호컬(62) 부지사가 맡는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28. 장라득(1876-1955)

장라득은 강화도에서 태어났다. 그의 생일은 1876년 8월 15일 또는 같은 달 25일, 또는 1878년 8월 4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결혼하였으나 출아 비로서 1903년 4월 15일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남편 마루에 몸을 의지해 하와이로 떠났다.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하기는 그달 30일이었으나 종합 신체 검사를 한 후 호놀룰루를 밝기는 다음 달인 5월 2일이였다. 그런데 5일 후인 그달 7일에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했다. 유학자 1902년에 도미한 도산 안창호와 그의 부인 이해란을 장라득이 만났을 것이다. 장라득이 상항에 도착한 지 4개월이 되던 1903년 9월에 도산 안창호가 상항에서 동포 인사 장수의 싸움을 보고 개선책으로 상항 한인친목회를 창립할 때 장라득도 함께 회원으로 가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가 회장이 되고 회원에 박성겸, 이대위, 김성무, 박여운, 장 경, 김찬일, 김병모, 전동삼, 박승지 등으로 조직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이름이 보이지는 않았다. 하와이에서 한인들이 계속 상항으로 건너오면서 상항 한인친목회 회원수가 49명까지 되었다고 하니 이 명단에는 장라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한 1905년 1월에 일제는 호놀룰루 주재 일본 총영사 사이토를 대한제국 명예총영사로 임명해 재미한인을 통치하려 했다. 이에 일제의 재미한인 지배에 대응하기 위하여 1905년 4월 5일에 위의 상항 한인친목회가 중심이 되어 상항에서 항일운동과 동족지원을 목적으로 공립협회를 만들었다. 장라득이 공립협회 창립멤버 49인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본다.

상항 한인감리교회

그런데 상항 한인친목회의 몇몇 기독교 신자들이 따로 예배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듬해인 1904년에 방화중이 문경호와 함께 전도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전도하였다. 장라득이 이 전도회에 소속되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해 6월에 상항에 도착하여 방화중



장라득의 날인(1942년)

이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한 차이석이 쓴 '금산'에서 장라득이 함께 한 당시의 예배정황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미국에 도착한 후 첫 주일 오후에 로비에서 열렸다. 이 예배에는 중국인들에게 한국 인사를 파는 몇몇 상인들과 미국인 집에서 일하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그들 중 2명은 평양에서 나의 이웃이었는데, 김관유는 오랜 친구였고... 다른 사람은 중

1905년 7월에 미국 감리교의 존슨 목사가 한인선교를 위하여 상항의 '페이 지 스트리트 521번지'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교회를 설치했다. 예배를 위해서 두 개의 거실을 사용하였고, 한인이 기숙할 수 있도록 13개의 침대를 포함하여 간단한 가구가 있었다. 본 한인교회는 미국북감리교 태평양 일본인 선교지방 아리에 있었고, 문경호 전도사가 목회했다. 상항 한인감리교회는 이때를 창립일로 지정하고 있다. 1906년 6월에 내리교회 담임목사이자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였던 조지 존슨 목사의 추천으로 문경호 전도사를 대신하여 방화중 전도사가 본 교회를 섬겼다. 이즈음 내한 선교사 윌리엄 A. 노블 목사가 한국으로 가는 길에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그날 3명이 세례를 받았다. 노블 선교사에게는 해외에서 한인에게 부흥회를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준 뜻깊은 날이었다. 방화중은 상항뿐만 아니라 바카빌과 세크라멘토까지 목회의 영역을 넓혔다. 그해 9월 통계는 입교인이 18명, 세례 교인이 22명 그리고 학생교인이 15명이었다. 이들 중 17명은 상항에 거주했고, 23명은 바카빌에 거주했으며, 나머지 15명은 세크라멘토에 거주했다. 얼마 후 방화중이 나섬으로 이주하면서 양주삼 전도사가 1906년 11월부터 본 교회를 시무했다.

1907년 11월 10일 주일 밤에 상항 한인감리교회 청년회에서 '국권을 회복하려면 정치에 있지 아니하고 실업에 있다'는 주제로 백운조와 함께 장라

1907년 12월에 있었던 청년회 임원선거에서 장라득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음은 자연스럽다. 선임된 다른 임원은 회장 허승원, 서기 송종익, 회계 김영일, 정원도, 경찰 박윤하, 응접부 전득부, 통신부 김영일 그리고 사법 이대위였다. 이듬해 12월 6일에 선정한 상항교회 청년회 임원진에 장라득이 교제부장이었다. 그해 다른 임원은 회장 김성권, 전도 이대위, 인제 박윤하, 학문 정재관, 통신 정원조, 회계 허승원이었다.

1909년 상항 한인감리교회가 교회 때나 다른 곳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귀국한 교인도 포함하여 작성한 연합교우록에 기록된 교인은 48명인데 첫째 이름이 양주삼이고 장라득은 두 번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라득이 본 교회 세례명단에 없으므로 도미하기 전에 그의 고향 강화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상항에 거주하던 마영준이 장기간 외방으로 고생하는 소문을 듣고 각처 동포가 구제금을 보냈는데 1909년 9월 15일자 신한민보에 기부한 명단과 그 기부금 액수에 따르면 장라득은 거금 10달러를 기부하였다. 그해 11월에 이홍주와 민병기가 한국을 떠나 유럽을 돌아서 미국으로 오던 중 런던에서 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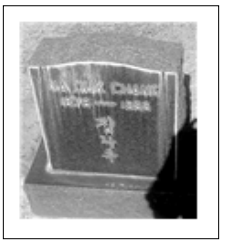


상항 한인감리교회(1912년)

다. 구체적인 전도 활동을 찾을 수 없으나 안타까울 뿐이다. 당시 교회 목사는 그해 2월에 부임한 이대위 전도사였다.

1912년 1월에 발간된 대도가 상항 한인감리교회의 경비부족으로 작년에 특별히 헌금한 명단과 그 헌금액을 발표하였는데 그 명단에서 장라득이 거금 4달러를 헌금했음을 알게 된다. 그의 기부에서 주님의 말씀인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는 마태복음 6:21을 쉽게 상기하게 된다. 1919년에 장라득이 선뜻 기부할 수 있었던 전시 미주한인의 금력 찬조와 의무금과 독립의연 그리고 기미독립만세 운동 구제금 등은 결코 뜻밖이 아니다. 이러한 기부는 그의 믿음에서 가능했다.

1920년 11월 25일 오후 8시에 옥스 스트리트에 있던 상항 한인감리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었다. 일동이 235장을 합창한 후 최진하가 기도하고 취지를 설명한 다음, 상항 국어학교 학생들이 합창하였고, 사회자의 성경 봉독에 이어 최피터와 황반도가 감사절의 문답을 한 후 하소정의 독창에 이어 최데다와 황엘리자벳과 하소정이 삼중창을 하였으며, 정인과 목사가 설교하였고, 전봉운의 음악 순서에 이어 이대위 목사가 축도하고 폐회를 하였다. 이후 지난 한 해 감사하는 간증 시간에 형제자매가 경쟁적으로 나와 받은 은혜를 감사하였는데 그 중에 상항 한인감리교회 초창기부터 열심과 성력을 다한 장라득의 감사는 가장 큰 은혜를 끼쳤다. 그가 한 감사의 내용을 찾아 못해 아쉽다.



장라득의 묘비

감사를 아는 장라득의 구제는 1921년의 간도 참상 구제금과 특별 외교비 의연금에 이어 1925년의 인구세와 서재필 박사 여러분 연결되고, 1928년의 만주 거주 동포 동정금, 한국 수재 구제금 그리고 국민회 보조금에 이어 1929년의 전명은 의사 부인 장비와 1930년의 장인환 의사 장비, 1937년의 항일전쟁 동정금, 임시정부 후원금, 중국 항일전쟁 동정금 그리고 1940년 신한민보 식자기계 의연과 광복 후원금으로까지 신한민보에 보도된 대로 수십 번 동안 이어졌다.

1942년에 제출한 세계 제2차 대전 징집서류에 따르면 장라득은 임CH가 운영하는 상항 스탠튼 1116번지의 한인 여관에서 식당 노동자로 활동했다. 그 후 정든 상항을 떠나 나섬으로 이동한 그는 1954년 1월 15일에 연방정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였는데 이듬해인 1955년 11월 6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섬에서 향년 79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섬 앤젤러스 로즈데일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상항한인감리교회 엠플스청년회 전도국장으로 활동 교회 헌금과 독립지원, 미주한인 구제에 항상 앞장

양교회 방 장로의 큰아들(방화중)이었다. 하와이에서 새로 온 사람들로 인해 회중은 알맞은 규모를 이루었다. 나는 창문을 보며 김관유와 그 동무(방화중) 사이에 앉았다. 물론 예배는 방 형제(방화중)가 한국말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인도했다. 그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내가 미국 땅에 도착한 지 처음 참석한 주일예배였고, 찬송과 기도와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준 선교사들이 온 나라에서 우리말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오랜 지기와 동포를 만나는 기쁨이었다. 그때... 총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모두 일어서서 예배를 마치는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정면의 창문을 깨고 부조준된 미사일 즉 주먹만한 돌이 폭탄처럼 날라 들어왔다. 그것은 창 앞에 앉아 있던 나와 방 형제를 가깝스로 비껴 나갔다. 우리는 놀라서 예배를 멈추고, 소유자인 황 씨가 조사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밖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들어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알기로, 대개 여기 이웃은 친절하고 조용합니다. 아마 지나가는 부랑자나 술꾼이 한 짓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득이 연설하였는가 하면 다음 달 22일에는 '상업을 발달하는 방책'에 대해서 연설하였으므로 장라득의 높은 지도력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지도력은 그해 12월에 그를 상항 지방회 경찰과 응접위원 2명 중 한 명으로 선정함에도 볼 수 있다. 그해 다른 임원에는 회장 최우선, 부회장 김영일, 대의원 총무 겸 사법 이대위, 서기 송종익, 구제 조성환이었으며, 또 다른 응접위원은 김길연이었다.

이듬해인 1907년 6월에는 상항 한인감리교회 청년회에서 황사용과 함께 장라득을 앞세워 '지육보다 체육이 급하다'는 주제로 가부 토론을 하였다. 그해 8월에는 '문학보다 실업이 승하다'라는 주제로 전성덕과 함께 장라득이 가부로 토론한 후 적당한 연설로 그 문제를 해석한 자들이 이승만과 신홍우이었으므로 장라득의 지도력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그해 10월에는 장라득이 최덕룡과 오대영과 함께 '일본에 대한 정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하였고, 다음 달에는 장라득이 박윤조와 함께 '국권을 회복하려면 정치가 아니라 실업에 있다'는 주제로 토론하였으며, 그해 마지막인 12월에는 장라득이 '상업을 발달할 방책'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란을 당하였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재미한인들이 기부금을 보냈고, 이들 두 명이 기부금을 보낸 명단과 기부금 액수를 신한민보에 게재하였는데 장라득이 한번도 보지 못한 동포에게 1달러를 기부하였다. 이러한 기부자였던 장라득이 그해 12월에 대한인국민회 상항 지방회가 내린 구제원에 장라득을 선정할만했다. 그의 구제 행렬은 이듬해 애국동맹단 의연금에 이어 1911년에 정국 구제금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1912년에는 본 지방회의 회장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전도국장

상항 한인감리교회가 발행한 1911년 8월자의 '대도'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지년간 6월 4일에 본 회관에서 엠플스청년회원이 통상회를 개최하고 각 임원을 교체함에 여자하더라. 회장 강영소, 전도 장라득, 학문 최정익, 인제 박윤하, 교제 양주은, 통신 강 변, 회계 박윤하." 위의 보도에서 장라득이 전도 부장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전도부장은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전도하였는데 장라득도 전도인으로서 활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후 8: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jer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1:2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번외 박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정년부)수: 오후 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선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일: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엘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가족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북쪽출판사교회와 협력목회) 성경사예 (월-금) 오아시스-주-목회사(토)목회 사역지역: 1. 여왕사역지 2. 교회 중심도 사역지 3. 목회사역지 4. 가정사역지 5. 청년사역지 6. 은퇴자사역지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n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퇴자기도시간: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8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mna.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stone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 배 : 오전 9:45(101동)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어성령이 임하시라'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언제 에덴동산(천국)에 들어가는가? (2)



라흥채 목사
(뉴욕제자교회, GPS센터 대표)

3)계시록 20:1-6-천년왕국은 없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 주사 받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20:1-6).

reigned(왕)이라 번역하여 이것이 천년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 thousand years를 천년으로 해석하였는데 이 천년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이 나지 모르며 예수님과 그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reigned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인데 직역해서 왕으로 번역하므로 계20:4, 6에 reigned를 왕으로 번역하였으므로 천년이 있고 왕이 있으니 자연적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①계20:2(천년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다) 계20:2에는 용을 a thousand years(천년) 동안 무저갱에 넣는다고 했는데 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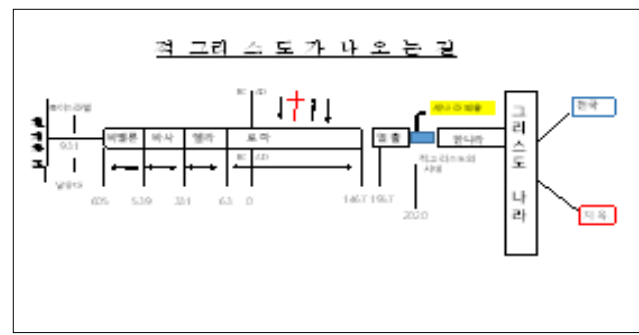


도표2

과 이 올바른 번역은 오랜 시간으로 번역이 되어야합니다. 오랜 시간이란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감금하는 시간이며 예수님 재림 후에 잠시 놓이리라 하셨습니다.

③계20:5절(천년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다) 계20:5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까지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천년도 어느 때 시작인지 어느 때 마지막인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2000년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간이 되므로 천년이란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올바른 번역은 천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④계20:4, 20:6(천년왕국이 아니고 다스린다) 계20:4절에는 예수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 노릇 한다고 하였고 계20:6절에도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왕 노릇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천년의 시작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부터 천년이 시작되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계 11:15(천국) 천국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시간과 공간도 필요 없고 현재 과거, 미래도 없습니다. 피조물 하나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년동안이란 말은 잘못 번역한 것이며 여기에 a thousand years는 오랜 시간, 영원한 시간은 영원한 천국 생활입니다. reigned, 계20:4, 6은

a thousand years → 천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 reigned →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돼) 다스린다, 통치한다

더욱이 무서운 일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인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며(계10:10-11) 이 예언의 책을 먹고 예언(목회)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잘못된 부분을 버리고 올바른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대해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도표2)를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며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어느 때에 영적인 것이 나오는지 볼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 환란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것을 대비하고 끝까지 이겨내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년왕국은 없고 천천년, 후천년 설도 없다.

계20:1-6 사이에 다섯 번 나오는 a thousand years(천년)이라 번역하였고

이 언제 들어가며 언제까지 결박하는지 알 수 없으며 예수님의 재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천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눅10:18 사탄이 땅에 번개같이 떨어졌다 하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 계시로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천년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a thousand years가 오랜 시간이란 말이 정확한 해석의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탄을 무저갱에 가둬둔다는 말씀입니다.

②계20:3(천년이 아니고 오랜 시간) 계20:3절에는 천년이 차도록 가두고 천년 후에는 잠시 잠깐 놓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천년이 어느 기간 동안이며 천년이 언제 차는지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시간이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천년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받은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첫째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살아서(첫째부활)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reigned를 왕으로 번역하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reigned)왕이 잘못된 번역이며 여기에 reigned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이며 창1:28절에 다시 잃어버렸던 reigned가 회복되는 것이 계20:1-6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20:1-6절 사이에 a thousand years는 천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영원한 시간)으로 번역하여야 되며 reigned 이란 단어를 직역하여 왕으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창1:28이 회복되는 reigned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천년왕국도 없고 전 천년설도 없고 후 천년설도 없습니다.

andcny1@g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이혼가정 자녀회복(6)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질문: 며칠 전부터 기다리던 엄마와 언니를 만나러 가는 날이 드디어 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못 가게 됐다고 하셔서 괜히 아빠에게 화를 막 내었어요. 나중에야 엄마가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와 함께 살게 되는 꿈은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엄마가 행복해한다고 언니가 말해주셔 나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새부모 사랑하지 못해도 예의는 갖추도록

답변: 재혼가정을 복합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부부 둘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하는 만큼 복잡하다는 말이겠지요. 통계에 의하면 재혼의 일차결림률이 자녀들이고, 그들 역시도 부모의 재혼이 이혼만큼이나 큰 아픔이고 상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결혼관계와 자녀들의 학업성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재혼은 안전감의 상실로 학업성적 저하 등의 부작용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지요.

재혼가정의 원만한 결함을 위한 단계를 셋으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그들 마음을 들어보고 펼쳐질 미래에 대해 나누면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상대방 자녀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서서히 가까워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면 간섭으로 느낄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간의 조화를 시도하는 단계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불협화음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곧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나눈다면 이상적이겠지요.

세 번째 단계로는 '우리'라는 의식 갖도록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단단히 하는 것인데 이때 공통된 관심사를 찾게 된다면 정서적 소통에 도움이 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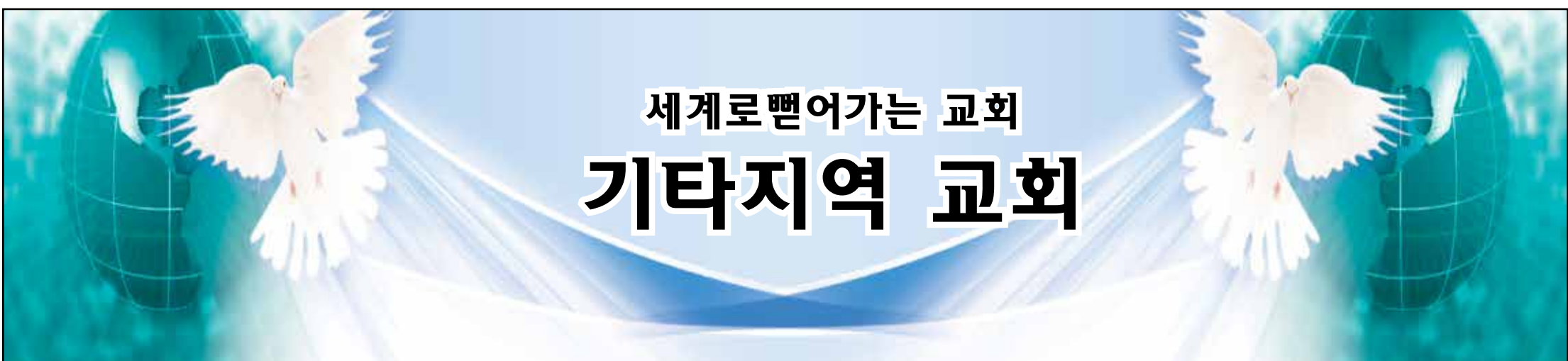
다음은 곁에서 자녀들의 자라남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줄 수 있는 친지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시도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의 재혼으로 더해진 상실감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과 다시 함께 살게 되더라도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엄마, 아빠를 서로 다른 집에 사는 각각의 개인으로 보는 게 어떨까...' 하고 말해보십시오. 덧붙여 '부모의 삶에 새롭게 나타난 사람들과의 새 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새부모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되고 단지 선생님을 대하는 정도로 예의는 갖추라'고 알려주세요.

다음으로 성경말씀 중 브리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삼하9:1-11). 다윗은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자 사울왕 가족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을 때 본인과의 형제를 맺었던 조나단의 숨어살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떨면서 왕 앞에 나타난 그에게, '네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네게 줄 것이고 너는 나와 항상 한상에서 먹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속의 브리보셋을 보살폈던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면서 마음 편히 갖도록 하자고 나누시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hyojungyoo2@yahoo.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수요일 밤 8:00 디너복 전영 인도: 매주 목요일 오후 4:00-7:00 Tel. (773)902-1112 estf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키운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데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Winton, MA 01748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데 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326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일영양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토요영양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Tel. (253)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새벽기도회의 기적!

주님세운교회가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하던 2020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던 중 역대하 1:6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 즉, 일천번제를 여호와께 드린 것이 생각났습니다.

역대하 7:13부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정성을 다한 낙성식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

께 드리자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때우기로 토산을 막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사라지게 하는 일은 성전에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일천번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결단하였습니다.

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대를 의지하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칼 뿜만한 자의 수효를 계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루에 7만명의 백성들이 전염병 팬데믹으로 죽어갈 때 급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명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시므로 그대로 준행하자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이 떨어졌고 여호와께서 사자를 명하시매 저가 칼을 집에 꽂으며 전염병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대면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새벽기도회"를 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

습니다. 그리하여 당회를 긴급히 열고 당회원들과 합의하여 주님세운교회가 새 성전 입당예배를 드리는 2020년 7월 19일부터 시작하여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302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회로 먼저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다니엘이 하루 세 번 고국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의 창을 열고 기도하듯 중보기도 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있는 고국,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새벽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불이 더욱 뜨겁게 타올라 평양장대현교회의 회개운동이 다시 일어나서 고국의 삼팔선이 무너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역으로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이슬람권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증거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정치지도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이 국민들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기도하며, 고국에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 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매일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마지막 선교의 보병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택하신 하나님은 선교의 포병의 나라로 미국을 택하여

대한민국과 함께 믿음의 혈맹 국가로 전 세계에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사 요한계시록 7장의 마지막 대 부흥의 사명을 감당케 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50개주에 4300개의 한인교회를 세워 마지막 시대에 무너져가는 미국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 천국도의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의의 병기로 쓰시려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미국에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한국과 미국이 마지막 대부흥의 사명을 맡은 것을 못하도록 집중 공격하면서 한국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미국을 평등법으로 부도덕하고 음란한 나라로 만들어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한국을 공산화 시키고 미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들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만들려는 흥계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귀의 꾀계를 영적으로 파악하고 한국과 미국을 통해 롬 9장-11장에 예언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계획이 성취되도록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새벽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엘리야처럼 일어나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비하스처럼 일어나도록 뜨거운 눈물로 중보기도 하는 운동을 성령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

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 일천번제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면서 뜻을 함께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기도회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전역과 한국전역에서 그리고 일본과 중국, 몽골과 호주와 태국,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베트남과 유럽 남미와 캐나다 등 15개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새벽기도회"에 사자로 같은 시각 혹은 온라인에 올려놓은 하루에 어느 시각이든지 편리한 시각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엘리야의 마음 사무엘의 마음을 품고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영적 회복과 부흥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동참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소리가 없이 전 세계에 퍼지는 기도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과 미국에 영적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전염병과 재앙이 사라지며 경제가 회복되고 요엘 2:28과 계시록 7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songpak@hotmail.com

출애굽 여정의 흔적을 찾아서...11월 출발

세마포호도스 주최 사우디 시내산 방문 프로젝트

사우디 시내산 방문 프로젝트 모임이 9일 오전 10시 세마포호도스(대표 켄안 선교사) 주최로 컴미션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은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을 방문을 위한 것으로 특별히 출애굽 여정의 흔적을 찾아가게 된다.

켄안 선교사는 "기독교영화를 10여 년 개화하면서 많은 신실한 미국기독교영화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며 "그중 사우디와 연결된 자들에게 시내산을 소개받았고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과 좀 미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선교사는 "사우디 방문을

알아보던 중 미국의 무슬림들이 뉴욕의 여행을 통해 순례하는 것을 알게 됐고 지난 1월 사우디를 방문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친히 통치하셨던 곳이 시내산이었고 1500년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막혀있던 곳이다. 성경에서 미디안 땅은 사우디에 있으며 시내산은 미디안 땅에 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사우디에 있다는 것"이라며 "호렘산은 느비딤이 있는 곳에 있으며 산맥을 가리킨다. 그리고 시내산은 산맥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라 설명했다.

이재환 선교사는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

기 전까지 시내산은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많이 알려진 시내산에는 출애굽과 모세에 대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대인들 또한 시내산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에 있는 시내산에는 당시 흔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일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를 점령했을 때 출애굽의 근거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며 "만약 시나이반도에 출애굽경로가 발견된다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시나이반도를 돌려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홍해를 이집트와 이스

라엘 사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왔지만 홍해는 시나이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아카바만이다. 아카바만 말바닥에는 홍해사건 때 수몰됐던 이집트 군대 마차와 바퀴 등이 있다. 반면 그동안 많이 알려졌던 아라비아만의 홍해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켄안 선교사는 "사우디가 시내산 등을 개방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라고 말하며 "그동안 사우디는 석유를 팔아 국가를 운영했다. 하지만 뉴노멀시대에 석유의 비중은 거의 사라지게 되며 그럴 경우 사우디의 국가운영이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네옴프로젝트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스마트시티 건설 등으로 미래를 대비하게 되며 이 프로젝트에 시내산 관광도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11월에 방문하게 되는



세마포호도스 주최 사우디 시내산 방문 프로젝트 모임에서 켄안 선교사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역은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만 요르단에서는 3박4일간 머물게 되며 느보산, 모세기념교회, 아르논 계곡, 세례요한 침수터, 모세의 샘, 호르산, 로마원형극장 등이며 4박5일간 머물게 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팜 오아시스, 엘림지역, 마그나, 엘리야의 동굴, 모세의 우물, 시내산, 르비딤 반석, 금송아지벽화 등을 방문하게 된다. 시내산 정상까지는 10시간 정도 소요된다. 또한 방문지는 사막으로 지프를 이용하게 된다. 현재 정확한 일정을 현지여

행사와 협의 중에 있다. 여행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게 될 것이다. 켄안 선교사는 "현지 방문 시 코로나19 백신접종카드와 PCR 테스트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또한 현지에서 머무르게 될 숙소는 호텔이 될 것이라 숙박비가 비싼 편"이라며 "무엇보다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체력단련이 필수적인 만큼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문의: (213)262-9411 (박준호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grid with headers like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and '하와이 및 북미 지역'. Includes church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denominations.

동부교계 기사판

뉴저지장로연합회 제 7회 영적 대각성 기도회

뉴저지장로연합회(회장 정일권 장로)가 주최하는 제 7회 영적 대각성 기도회가 8월 31일(화) 오후 8시 주님의은혜교회(담임 최준호 목사)에서 열린다. 영성회복을 위한 영적 대각성 일일집회로 강사는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

▲문의: (201)815-6555, 290-8551

담임목사 청빙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설립 53주년을 맞는 PCA 교단 소속인 동 교회는 정규신학교 졸업,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경험이 있는 이중언어 가능자. 미국내 합법적 거주자로 이력서(본 교회 소정양식, http://kucp.org/pastorinvitation) 및 가족사진, 최근 설교 2편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서류마감일은 9월 11일이다.

▲문의: PulpitCommittee@kucp.org

IT 강좌

비영리기관 네이버플러스가 제공하는 IT강좌 Python Programming for Beginners이 9월 18일(토) 오전 10시(EST) 오리엔테이션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강의기간은 9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10월30일 휴강)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20명. 수강료는 50달러이며 수강료 보조프로그램이 있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문의: (201)461-0909 www.neighborplus.org

호산나대회 강사변경

뉴저지교회협의회(회장 이정환 목사)가 주최하는 호산나대회 강사가 진유철 목사로 바뀌었다. 원래 예정됐던 한별 목사(순복음대학원대학교 총장)는 한국 체류자여서 팬데믹 상황에 자가격리가 필요해 시간을 맞추지 못해 강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진유철 목사는 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과 소속 교단인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부터 미주성서화운동 공동대표로 섬기고 있다. 호산나대회는 9월 10일(금)부터 12일(주일)까지 3일간 뉴저지연합교회에서 진행된다.

▲문의: (201)587-3999



퀸즈장로교회 '킹덤미션' 오프닝예배에서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다

킹덤미션... "함께 앞으로"

퀸즈장로교회 2021 단기선교 온라인으로

퀸즈장로교회 2021 킹덤미션이 12월 밤 11시 오프닝예배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진행됐다. 매년 단기선교를 해오던 퀸즈장로교회는 팬데믹으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하지 못하게 되자 온라인 선교를 시도해[본지 1836호 9면 참조] 성공적으로 마쳤다.

선교지는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4개국이며 지역내용은 청소년 집회, 부흥회, 의료사역, 태권도 수업, 피아노 수업, 언어사역 등 선교 현지에서보다 더 풍성하게 진행됐다.

첫날 오프닝예배 설교는 담임 김성국 목사가 예배소서 2장 19-22절을 본문으로 "함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팬데믹으로 작년에는 선교사들과 줌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올해도 막혀버린 단기선교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 한다"며 선교현지인들에게 각 나라말로 인사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김 목사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해 죄가 없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죄가 없어진다"며 복음의 정성을 말하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그날이 아니라 미션의 사명이 있다며 함께 가야 한다. 하늘나라의 꿈을 갖고 있다면 선교의 꿈도 가져야 한다. 세상을 향해 예수 복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며 도전했다.

'킹덤미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을 다민족의 원어교사들을 통해 선교지의 청소년들에게 복음과 함께 언어를 가르쳤다. 또한 선교지 스태프를 양육해 예배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진행된 피아노 수업과 미디어 교육도

다민족 스태프들이 함께 진행했다.

이번 킹덤미션 총 디렉터인 남형욱 장로는 "이번 미션이 퀸즈장로교회 비전 중 하나인 다민족 예배를 통해 다민족 회중의 결실을 보게 하셨다"며 감사를 드리고 "유초등부 어린 자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해 세상은 막혔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교 '킹덤미션'을 통해 새로운 선교방법을 깨닫게 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곳이 없게 하셨다"고 감격했다.

남 장로는 "킹덤미션의 프로그램은 누구든지 선교의 열정만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 개인적 형편의 문제를 넘어 선교현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며 "유트브를 통한 일방적 전달이 아닌 양방향 소통으로 선교현장을 방문한 것에 버금가는 선교효과를 갖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준비된 '킹덤미션'은 향후 새로운 선교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박3일간 82명이 참가해 교회에서 숙박하며 진행된 킹덤미션 마지막 날 해단식에서 참가자들은 간증을 통해 큰 은혜 받은 것을 고백했다. 또 선교현지에서도 열악한 전기와 인터넷 사정도 '킹덤미션'을 막지 못했다고 5개국 동 시간 예배와 교제를 통해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간증했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킹덤미션' 매뉴얼을 미주 한인교회와 나누고 밝혔다.

▲문의: (718)886-4040

www.kapcc.org
(유원정 기자)

은과 금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의 최대 연례행사인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한 2차 준비기도회가 12일 오전 10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교협회장 문석호 목사는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들, 참석한 중경회장들에게 감사한다"며 "오늘 준비기도회가 뜨거워 기도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감사와 인사를 전했다.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구호를 외치며 "가장 많은 수고는 회장님이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계속 도와주시며 마지막까지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성 목사는 "작년에는 70여 교회가 후원했는데 올해는 100개가 넘을 줄 믿는다"며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대회장의 뜻을 받들어 맡겨진 일만 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준비된 포스터를 배부했다.

1부 기도회는 김영철 목사 인도로 기도 유승례 목사, 성경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봉독 손성대 장로, 설교 전희수 목사, 합심기도 축도 김원기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혁신위부위원장)는 "할렐루야 복음화대회의 힘" (행3:1-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의 핵심구절인 6절을 강조하며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해야 한다. 돈으로 해결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영성을 측정할 수 있고 필요를 알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고 말

했다.

전 목사는 이번 대회 강사가 선교사(양창근, 파라과이)임을 언급하며 "이번 대회표어가 '선교부흥과 영성회복'인 만큼 펜데믹 가운데서 힘든 선교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하며, 이번 할렐루야대회의 힘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영혼구원에 있

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합심기도는 △대회 강사, 순서자, 진행과 날씨를 위해 박항우 목사가 △준비위원들, 홍보, 동원, 안내, 재정, 안전을 위해 김재관 장로가 △뉴욕교계의 영성회복을 위해 정숙자 목사가 △차세대 지도자와 선교부흥을 위해 임지윤 목사가 각각 기도인도 했다.

2부 경과보고는 회장 문석호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박정오 목사, 회장인사, 대회보고 이준성 목사, 광고 박시훈 목사, 폐회 및 오찬 기도 김희숙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일정은 △목회자세미나: 9월 10일(금) 오전 10시30분 뉴욕대 한교회 △복음화대회: 11일(토) 오후 7시30분 뉴욕장로교회, 12일(주일) 오후 5시 뉴욕 장로교회에서 개최된다.

한편 3차 준비기도회 및 3차 임실행위회가 8월 26일(목)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교협 선관위와 교협회장이 만남을 가졌다.

정부회장 후보등록마감 8월 26일

뉴저지교협 선관위 회장 회동 선거일정 전달

뉴저지교협이 9월 30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지난 8월 14일 오전 7시30분 교협회장과 회동을 갖고 지난 10일 선관위 첫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했다.

내용은 ①선거를 위한 투표용지 등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총무, 서기). ②후보 등록은 공지한대로 8월 26일(밤 12시) 마감일을 엄수한다. ③등록자에 대한 심사는 선거관리 규정 제10조(자격)와 제11조(등록서류)를 준용(準用)해 진행한다. ④후보 등록마감 후 28일(토) 오전 7시30분 대면모임으로 후보등록서류를 심의한다. ⑤회장, 부회장 임후보자 등록이 없을시 임원회에 보고해 선거관리 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공천위원회에 전임(專任)한다.

선관위는 위원장 장동신 목사와 위원 김동권 목사, 최재형 목사, 유귀철 장로, 이춘섭 장로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뉴저지교협은 지난 2년 동안 부회장 등록자가 없었으며, 지난해는 부회장이 회장출마를 포기하고 회장 출마자가 없어 전 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공천한 바 있다.

후보 등록 서류는 등록원서, 소속교단 추천서, 이력서, 사진만 있으면 되며 후보등록비도 없다.

이번 뉴저지교협 목사 정, 부회장 후보등록마감은 8월 26일이다. 총회는 9월 30일(목) 부회장 고한승 목사가 사무하는 뉴저지연합교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출판감사예배를 마치고 호성기 목사와 오은혜 사모가 기념촬영 했다.

"선교의 제 4 물결을 타라"

필라안디옥교회 호성기 목사 출판감사예배

필라안디옥교회 호성기 담임 목사가 집필한 "선교의 제4 물결을 타라"(국민일보)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8월 4일 저녁 열렸다.

호성기 목사는 출판 감사 예배에서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며, "이 책의 내용과 원리들은 자신이 발명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온 선교적 교회의 가치와 원리들을 실천하고 행한 것뿐"이라고 소회를 말했다. 또한 "이 책은 저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써내려간 고백이고 편지"라고 고백했다.

이 책의 출판은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미주의 한인교회

들을 순방하던 중 필라안디옥교회를 방문해 안디옥교회에서 3세대와 다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아 안디옥교회의 사역 철학과 선교 비전을 국민일보에 연재해줄 것을 호 목사에게 요청해 이후 25주에 걸쳐 주옥같은 칼럼들이 국민일보에 연재됐고 국민일보가 책으로 출판하게 됐다.

이날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와 필그림선교교회 양춘길 목사,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원로목사가 축하영상을 보내왔고 안디옥 음악학교 어린이 합창반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광복절 76주년 기념식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가 주최하는 76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8월 14일 오전 11시 뉴욕세 합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렸다. "행동하는 애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60여명이 참석했다.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는 지난해 2월 미동부 지역 교계 인사들이 중심이 돼 설립된 단체로 정명희 목사가 의장, 박태규 목사가 부의장, 송병기 목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1부 예배는 부의장 박태규 목사 사회로 장석진 목사가 설교했으며, 방지각 목사가 축도했다. 장석진 목사는 에스라 1:1-4를 본문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을 강조했다며, 방지각 목사는 축도에 앞서 자신이 경험한 8.15의 감격을 나눴다.

또 박이스라엘 목사, 이재덕 목사, 김택용 목사, 박항우 목사 등이 조국광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조국의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 등을 위해 기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광복76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신영옥, 아론 브레이크 출연

광복 76주년 기념음악회 성료

광복 76주년 기념음악회가 14일 오후 6시30분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소프라노 신영옥, 테너 아론 브레이크가 출연해 LA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 주현상)의 연주에 맞춰 아름답고 격조 높은 공연을 선사했다.

연주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LA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차이코프스키의 Polonaise

from 'Eunene Oegin', 시벨리우스의 'Finlandia'를 연주했으며 오페라곡과 한국가곡을 공연했다.

이날 음악회는 '내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고향의 봄'등을 앵콜곡으로 부른 뒤에 마쳤다.

이날 공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만에 관객입장을 통한 공연이 열려 많은 동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관람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방향이라는 주제의 비대면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방향”

월드미션대비대면 학술포럼, 김서영 남중성 우상문 교수발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방향”이라는 주제로 비대면 학술포럼을 줌으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서영 교수(본교 사서)가 ‘목회정보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서영 교수는 “주류 매스미디어인 TV방송과 신문 등 종이 매체의 위상이 떨어지고 유튜브가 그 위상을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정보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그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알려 주는 많은 정보 중 적당한 것을 찾고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필요한 정보 어떻게 찾아야 할지 어떤 정보를 선택할지 분별하는 능력, 고른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남중성 교수는 “디지털시대와 영상”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남 교수는 “코로나19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생각하게 됐고 현재 온라인 예배는 예배사회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는 과학혁명적 시대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됐다고

한다. 스마트폰은 이미 신체일부가 돼버렸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교회 출석률이 줄어들었다. 한국의 주요교단들 경우 15-30%로 줄어들고 있다. 온라인교회 모바일교회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는 시대가 지났다. 온라인 예배 등 디지털 생태계에서 사역자들이 적응해야 하며 동시에 영성에 대한 부분도 깊이 고민하면서 사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목회의 실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우상문 교수는 “사역자들이 디지털목회 실제 활용방안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목회현장에서 활용될 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와 필요한 야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목회를 위해서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소통과 유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 방송 촬영기법 카메라 조명 사용기법, 방송그래픽사용기법, 인터넷 방송출판, 영상편집 기술, 효율적 온라인소통, 미디어 팀사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컴퓨터는 어느 정도 처리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미국은 물론 폴란드, 니카라과, 캐나다, 한국 등에서 참석했다.

(박준호 기자)

업무협업으로 시너지효과 낸다

소망소사이어티, 한인가정상담소 MOU 체결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와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케더린 염)가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6일 오전 10시 소망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과 신혜원 고문, 한인가정상담소 케더린 염 소장, 제니퍼 오 부소장이 참여했다.

이번 MOU는 △고령층/시니어 커뮤니티 구성원을 위한 취업 프로젝트개발 △세미나, 워크숍, 캠페인, 리서치 등 협업 활동 구성 △공공관심분야에 대한 관련자료 교환 및 직원 교육 상

호 실시 △관련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гран트 지원시 사전에 상호 협의해 진행한다.

유분자 이사장은 “LA 지역에서 상호협력, 가정상담소 지부 등 여러 단체를 발족하며 사역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사역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며 “비영리단체가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 낫고 함께 협력해 나갈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MOU가 한인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믿음을 확정하라’ 주제

감사한인교회 하계부흥성회, 강사문성 선교사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하계부흥성회가 ‘믿음을 확정하라’라는 주제로 13일부터 15일까지 문성 선교사(파푸아뉴기니)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15일 오전 11시30분 구봉주 담임목사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황송우 장로 기도, 사랑성가대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날 문성 선교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서’(고후 13:5)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문성 선교사는 “믿음은 believe라는 동사, faith라는 명사가 있다. believe는 행위와 자유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행위를 만들게 되며 인간이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만족 외에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며 “하나님은 believer와 일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faithful man이지 believer가 아니다. faithful man이 돼야 예배가 예배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정체성을

바로잡아 신앙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선교사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정을 주셨다. 첫째 지식을 탐구하는 능력을 주셨다. 둘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 느끼는 감각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셋째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믿음의 구성요소는 첫째 지식이다.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는 66권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근거를 갖는 것이 온전한 지식이다. 둘째 하나님의 인품을 알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으로 밝은 빛으로 드러난다. 예배를 드리는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이민아 선교사 간증과 특송이 있었다.

이날 예배는 구봉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감사한인교회 하계부흥성회에서 문성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광복절 제76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제73주년 감사예배와 미, 한, 북을 위한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미국 한국 북한을 위한 기도회 겸해

광복절 제76주년 및 대한민국건국 제73주년 감사예배

광복절 제76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제73주년 감사예배와 미국, 대한민국, 북한(북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2시30분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역사지킴이운동본부, 미주 3.1여성동지회, 미주한인재단LA, 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행사며 나라를 위한 기도회로 열렸다.

박세현 목사(세계기도모임 사무총장)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이철민 목사(세계기도모임 자원위원)가 기도했으며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사6:9-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상명 목사는 “디아스포라는 고도 팔레스타인 떠난 유대인을 가리킨다. 타국에 거하며 자신의 문화와 풍습을 지키며 사는 거주민 공동체를 일컫는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대한민국 시작한 이민의 거점에서 시작한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왕(황제)이 나라의 주인에서 국민이 그 나라 주인이 되는 의식은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다”라며 “구한말 대한제국 대제후 새로운 형태 국가수립이 실패하기 시작했다. 조선왕조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왕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공화제 국가를 꿈꿨다”고 말했다.

그는 “나무의 그루터기는 배임을 당해야 생긴다. 칼이나 톱으로 자를 때 만들어지고 아픔 상처를 통해 생긴다. 우리민족의 수탈수난 아픔당한 역사 속 대한민국이 건립됐다. 우리민

음의 그루터기도 거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루터기는 인내가 있을 때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생명력 있는 그루터기가 되려면 강인한 인내심 있어야 한다”라며 “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사는 이민자들이 7-800만명 정도다.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함께 하나님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 대표) 사회로 열린 2부 행사 및 나라를 위한 기도회는 국가에 대한 경례, 미국국가 및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그레이스 송권사(미주3.1여성동지회 회장)와 김순희 권사(대한민국역사지킴이운동본부 회장)가 기념사했으며, 이병만 장로(미주한인재단 LA회장), 한기형 목사(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고문, 미주CBS TV 기독교방송 대표)가 축사했다.

이어 기도회로 이어졌는데 샘신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중경회장)가 ‘미국을 위한 기도’,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중경회장)가 ‘미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여호수아 지 목사(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자원위원)가 ‘한국을 위한 기도’, 김영구 목사(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회장)가 ‘북한 북음통일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했으며 은근그린 음악선교사(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가 특별연주를 했다. 이날 행사는 광복절 노래를 부른 후 김향로 장로(미주CBS TV 기독교방송 후원이사장)가 만세삼창을 외친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QT를 통한 시장작교실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민미 전도사)은 15기 QT를 통한 시장작교실을 시작한다. 15기는 8월 셋째 주에 시작하며 8주 코스로 진행된다.

▲문의: (818)590-6459

엘피스가정사역원 사모행전 나눔의 시간

엘피스가정사역원(원장 박은송 목사)은 ‘사모행전 나눔의 시간’ 사모님들과의 포럼을 28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엘피스패밀리룸(LA복음연합감리교회 2층)에서 갖는다. 화비는 없으며 참석하는 자에게 사모행전 책을 선물로 나눠준다.

▲문의: (213)700-9928

Serve and Give미션 설립감사예배

Serve and Give 미션(대표 박성민 목사) 설립감사예배가 21일(토) 정오에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문의: (818)331-5478, (661)618-9392

선교찬양을 위한 악기교실

선교찬양을 위한 악기교실이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강사는 김인식 목사이며 시간은 우클렐라 교실이 오후1시부터 2시, 기타교실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열린다. 장소는 선미니스트리(13921 Artesia Blvd, Cerritos, CA)다. 문의는 문자메시지로 하면 된다.

▲문의: (909)610-5431 임보희 선교사

담임목사 청빙

하와이주 빅아일랜드 섬 코나에 위치한 코나한인선교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복음주의 소속 정규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사안수 후 목회경력(부목사 경력 포함) 5년 이상 된 이민목회 경험이 있는 자이며 이중언어(한국어/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가족소개 및 가족사진, 목회비전을 포함한 목회계획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 또는 안수증명서(사본), 추천서 2부(목회자 추천서 1부 필수, 추천인의 연락처 기재 요망), 설교 2편(MP3 file 혹은 YouTube 링크)이다. 제출 마감일은 9월 30일이며 제출처는 Email: kkmcc.hawaii@gmail.com, 우편: 76-4295 Leilani St., Kailua-Kona, HI 96740이며 서류는 Email제출을 선호한다(Word 또는 PDF파일 형태로).

▲문의: (808)796-9985 청빙위원장 최중호 집사



LA사랑의교회 수요어름말씀축제에서 김우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LA사랑의교회 수요어름말씀축제

4일 강사 김우준 목사 ‘우리 삶의 단 하나의 열정’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수요어름말씀축제를 매주 수요일 저녁에 갖고 있다.

4월 저녁 7시30분에 열린 말씀축제는 김우준 목사(토렌스 조은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우리 삶의 단 하나의 열정’(행 4:23-3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우준 목사는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다. 하지만 돈을 위해 쓰여지는 시간이 과하다”며 “하나님 앞에서 그날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의 가치는 없어진다. 우리의 목숨을 내걸어도 좋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나라를 위해 우리는 지으심 받았

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한다. 나의 삶의 왕,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 땅 끝까지 복음전해 모든 나라 민족 족속 방언이 주님의 다스림에 거하며 예수님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며 함께 예배하는데 거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단 하나의 열정은 하나님나라여야 한다. 언젠가 다 사라질 돈, 명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나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회개 없이, 간절한 기도 없이 대각성 없다”

2021 자마 영적대각성부흥회, 김춘근 장로 설교

2021 자마 영적대각성부흥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8월 6일 부흥회는 김춘근 장로(자마 설립자)가 ‘왜 지금인가?’(대하7: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춘근 장로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미국은 청교도 신육이 사라지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경말씀중심으로 덕과 인격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가 공동체 되고 미국을 건설해왔다”라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덕 때문이고 덕은 신앙에서 나온다. 자유는 신앙 없이

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906년 이후 미국에서는 이렇다 할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교회가 진심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교회를 통해 미국의 대각성은 일으켜질 것이다. 회개 없이, 간절한 기도 없이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땅을 치며 기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8·15 광복절과 정부수립(하)

-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신학과 신앙

초대칼럼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는 청빈하고 깨끗한 대통령이었다. 1980년대 초 나는 이승만 박사의 사저였던 '이화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었다. 그때 나는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를 만났고, 양자 이인수 박사 내외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승만 박사의 유품들을 돌아보았다.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는 경무대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검소했으면 양말을 기워 신은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 후 나는 하와이대학의 동서센터연구소에 가서 자료를 보니, 이승만 박사는 사망수발에 일하던 동료들의 1불, 2불 헌금을 받고 영수처리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국부 이승만 박사는 40여 년간 국내외에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깨끗하게 살았다. 이승만은 나라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으나 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미국으로 유학가서 1904년 4월 23일 워싱턴DC의 커버넌트장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투니스 햄린(Rev. Tuenis Hamlin)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커버넌트교회는 칼빈과 낙스와 맬빌을 있는 스코틀랜드 정통 장로교회였다. 햄린 목사는 당시 하버드대학교 이사장이자 조지워싱턴대학의 이사였다. 이승만이 조지워싱턴대학교에 공부할

때에 이 교회에서 철저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신앙 곧 칼빈주의 신앙을 배웠으리라고 본다.

특히 프린스턴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공부할 즈음에 이승만은 일년동안 신학공부에 주력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프린스턴대학교와 프린스턴신학교는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의 창시자였다. 특이한 것은 그의 아들 요하네스 겔할더스 보스(Johannes Geerhardus Vos) 목사는 만주 한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한부선 목사와 함께 일본의 '신사참배 반대운동 500인 서명'을 주도했는데, 한부선 목사는 이 사건을 '한국의 언약도'로 명명했다. 후일 J. G. 보스 목사는 커버넌트 후예들이 세운 피츠버그에서 가까운 비버폴의 제네바대학(Geneva College 1848)의 성경과 기독교교육 교수로 지냈다.

이승만은 프린스턴신학교에서 1년 동안 라틴어, 헬라어,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즉, 그는 프린스턴신학교 기숙사인 핫지홀(C. Hodge Hall)에 머물면서 1년 간 신학공부를 했다. 그는 그린 교수로부터 '기독교 변증학'을 배웠고, 찰스 어드만 교수로부터 '바울서신연구'를 배웠다. 어드만 교수는 후일 박형룡 박사의 스승이었다. 그 후에 그는 윌슨(Willson) 총장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치학으로 철학박사(Ph. D.) 학위를 받게

된다.

아마도 이승만 박사의 세계관은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는 중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배웠으리라고 본다. 특히 프린스턴신학교의 밀러 채플이나, 프린스턴대학 채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고, 당대의 프린스턴 석학들의 설교와 강의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프린스턴신학교는 아브라함 카이퍼 영향이 컸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화란의 뿌리아대학(Vrije Universiteit)을 세운 칼빈주의 학자요 정치가로서 화란 수상을 지냈다(1901-1905).

현재 프린스턴신학교 안에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소'가 있는 것을 보면 1898년에 윌월드 박사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를 초청해서 '칼빈주의 특강'을 하게하고, 프린스턴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를 수여한 일이 있다.

아마도 이승만 박사의 가슴에는 카이퍼가 꿈꾸던 이상대로 장차 조선이 독립국가로 세워진다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경중심의 기독교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 대한민국을 세울 때 이승만 박사는 먼저 이윤영 목사를 불러내어 기도하게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였다. 그래서 우남 이승만이 대통령 재임 시 토지개혁,

실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나라 전체가 세작들에게 노출되고 집단적으로, 교육계, 언론계, 학계가 담합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때에 이승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승만은 남북분단의 책임자라는 것도, 친일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3·15 부정 선거를 했다는 것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야당 대표 조병옥 박사가 선거일 한 달 전에 위암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말이다. 다만 최인규 내무장관을 위시한 참모들이 과잉 충성한 것은 맞다. 4·19학생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박사가 먼저 하야하겠다고 했고, 절대로 학생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

고 했고, 하야 후에 걸어서 이화장으로 갔다. 그리고 다친 학생들을 위로 격려했다. 세계 어느 독재자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70년간이나 3대 세습 독재체제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우남 이승만 박사를 말끝마다 독재자로 몰아 세우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공산주의자들을 예찬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다.

세상의 지도자들 모두가 완전한 자는 없다. 이승만도 인간적 약점이 있다. 하지만 '우남 이승만 박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었다'는 올리버(Oliver) 박사의 말은 옳다고 본다. 나는 미국의 많은 대통령의 기념관을 직접 가서 보았다. 그 대통령들이 모두 잘한 것은 없지만 장점만 높이 세워 그의 사상과 삶을 기념하는 것을 보았다. 역시 미국은 미국이었다. 건국 73년 동안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기념관 하나 못 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

1954년 8월 13일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우남 이승만 박사와 장문의 특별 인터뷰에서 이 박사의 핵심 메시지는 "공산주의자에게 굴복하지 마라"(Don't surrender to Communists)였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박사의 공적은 이 땅에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조국을 위해 기도하던 대통령이었다.

skc0727@yahoo.com

이 땅에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조국을 위해 기도하던 대통령...

“한국교회, 거룩한 개혁 이뤄야”

한교총 '광복 76주년 한국교회기념예배' 온라인 생중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광복 76주년을 맞아 15일 '기억하라, 그리고 미래를 열라'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에는 거룩한 교회로의 개혁을, 정부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힘 있게 펼칠 것을 주문했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민족상잔의 6.25 한국전쟁을 겪으며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분열과 대립이라는 상처를 끌어안고 오늘에 이르러 광복 76주년을 맞이했다"면서 "2021년 우리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방역 당국, 보건 의료진과 생

계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 편에서 서서 인내하고 고통을 나누며 코로나19를 치유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로 개혁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도록 헌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에는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억해 평화와 통일의 길을 넓혀나가고 국민의 자유와 주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엔 인신공격이나 정치 공작으로 표를 얻으려는 구

태를 버리고 정책과 비전으로 정당하게 경쟁하는 등 성숙한 '열사봉공'의 지도력을 보여 달라고 했다.

일본 정부엔 "제국주의적 야욕을 버리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기반 위에서 상호 공존과 평화의 길을 계획하라"고 촉구했다.

한교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꽃재교회(김성복 목사)에서 '광복 76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중집회 대신 방역수칙을 준수한 한교총 회원 교단 대표들과 주요 관계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된다.

한교총은 일반 성도들의 비대면 참여를 돕고자 CTS기독교TV와 유튜브 꽃재교회 채널로 전국에 생중계한다.

“교회 하나돼 절반의 광복을 복음통일로 완성해야” 광복절 앞두고 교계 메시지

기독교 주요 교단 및 단체들이 8·15 광복절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많은 애국선열과 순교자들이 믿음 안에서 아낌없이 목숨을 바쳐 일궈낸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국교회가 계승해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은 12일 광복절 76주년 총회장 메시지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예장합동은 "해방의 날은 민족살상책으로 일관한 일본의 폭압을 이겨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쾌거였다"며 "독립투사들의 피땀한 항거의 결실이었고, 선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과 헌신으로 온 열정을 불태운 선진들은 대한민

국을 일궈낸 위대한 영웅"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다만 예장합동은 "아직 분단의 벽을 깨뜨리지 못한 것이 송구하다"며 "피 흘린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꽃길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가슴에 품고 함께 걸어갈 것을 한국교회에 권면했다. "한국교회의 선교, 나라와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함께 헌신하자"는 말도 덧붙였다.

조교과 목회자연합기구인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 역시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가 절반의 광복을 하나로 완전히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목회포럼은 "피 흘려 지켜낸 우리 선조들의 노력에 부끄럽게도 작금의 한반도는 진정한 광복이 아닌 절

반의 광복만을 이뤘다"며 "남과 북은 다시 갈라졌고, 분단의 상처는 오늘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더욱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안에서 의 쪼개지고 갈라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하나됨에 앞장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분열과 갈등의 표본이 돼 버린 한국교회가 통회자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각성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지형은 목사) 또한 "역사의 망각은 남북의 분단과 강고한 독재체제를 낳았고 광복을 미완성으로 만들었다"며 "성결인은 이런 상황을 깊이 자각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성은 "한국기독교가 갱신되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가치관으로 교회와 사회가 바로 서는 데 헌신하자"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정한 광복의 역군이 될 것을 다짐했다.

목회자 57.2% “코로나19 이후 교인 감소”

예장통합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결과'

목회자 57.2%가 코로나19가 종식된 뒤 일상을 찾는다 하더라도 교인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진행된 조사 결과보다 8.0%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교인이 증가할 것 같다고 답한 목회자도 15.9%로 지난 조사보다 10.6% 증가하면서 코로나19가 목회 현장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발표한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결과'에서다. 예장통합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독교 조사 기관 지앤케이서치(대표이사 지용근)가 지난달 17~30일까지 예장통합 소속 담임목사 891명과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수차례 진행된 추적조사 중 하나로 코로나19가 목회에 끼치는 영향의 종합적인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교세가 감소할 거라 답한 목회자들은 감소 폭이 26.5%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수치는 지난해 5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6.8% 높아진 수치다. 이는 현장의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목회자 응답자 중 44.9%는 코로나19 종식 후 주일 현상예배 강화에 관심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9.8%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교인 응답자 중 48.4%는 '온라인교회'에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예배형태에 대해 교인과 목회자 사이에 간극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변창배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통계 데이터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과 6월 7월 11월에 진행된 조사의 연장선에 있는 조사로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또다시 평등법 발의...

교계·시민단체 반대 현수막 부착 운동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9일 같은 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에 이어 또다시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교계와 시민단체가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과 큰 차이가 없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박 의원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두 단체는 "필요할 때는 법의 이

점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실정으로 국민이 고통받을 땐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정치인은 강탈자에 불과하다"면서 "평등법을 발의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고, 다른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기독교계와 합의 없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안 된다'고 언급했다"며 "그런데도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평등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이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동성애·성전환 사상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국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제재하는 것이 이 법의 실체다. 신전체주의 독재를 법의 이름으로 승인하는 평등법안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안까지 포함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3개가 되면서 교계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진평연

과 복음법률가회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등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도 13일 대전 유성구 기갑남부연회 본부에서 평등법을 저지하기 위해 273개 교회에서 현수막 부착 운동을 시작한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도 박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의 실체를 알리는 긴급 동영상 제작해 13일 전국 266개 교회·단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339만명에게 공유한다.

1인 시위, 전단 배포, 현수막 게시 운동도 계속될 전망이다. 진평연은 지난해 6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반대 전단 338만8000장, 현수막 1441장을 전국에 배포했으며, 전국 200여곳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평 진평연 집행위원장은 "박 의원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법사위원장 대리까지 맡고 있어 그가 발의한 평등법의 파급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거대 집권 여당의 잇달린 행보는 정치 불신과 피로도를 극도로 증가시킨다"면서 "국론 화합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등법 저지 현수막 걸기 운동' 스타트

대전·충남 273개 교회 동참...이재정 의원 사무실 찾아우려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에 이어 같은 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지난 9일 평등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려는 교계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감

독서관중)은 지난 13일 대전 유성구 연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 저지를 위한 현수막 걸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승호 전 남부연회 감독은 "평등법은 이름만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체론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를 비관도 못하게 하는 전체주의적 독재 조항이 들어있다"면서 "반대의견을 굳이 법으로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현수막 게시 운동에는 대전 하능교회 할합교회 산성교회 둔산제일교회, 세종 불만동산교회, 논신제일교회, 정양교회 등 273개 교회가 동참했다. 이선규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장은 "평등법 제정 시도를 국론을 분열하는 이상민 박

주민 의원을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을 강력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여주 고자 교회마다 현수막 걸기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조만간 2차 운동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안양지역 교계와 복음법률가회, 시민단체도 이날 경기도 안양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평등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상민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각각 발의자로 나섰다.

왜 코로나 문서선교여야 하나요? (8)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으로 한다.

있으면 얻을 것이다

희생이 없이는 어떤 열매도 바랄 수가 없다. 비록 나의 남편은 나보다 먼저 주님 품에 갓지만 재소자들을 위해서 살

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며 죽으셨다.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이 땅에서 자유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나의 부르심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단지 나의 안락한 삶과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는 것뿐이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더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친구들 중 일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생명보험금을 재소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못하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만일 다시 선택을 한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택할 것이다. 재소자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치유, 그리고 소망이 절실히 필요하기

택했다. 내가 잃는 것에 비해서 다른 이들이 얻는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마태13:44). 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나는 나의 부르심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임을 안다.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며 영원한 것이기에 나는 그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사역에 부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글을 쓰도록 부르심

자금이 부족하여 밀려있는 책들을 출판할 수가 없다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말씀하셨다. 더불어, 주님은 책을 써서 단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책을 써야 한다고 하셨다.

2019년 주님은 내가 사역을 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내적치유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누라고 하셨다. 나는 책 화일과 오디오북, 녹화된 강의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렸다. 하지만 교도소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소자들은 책으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TPPM은 계속적으로 책을 출판하고 보급해야 한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주님은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세 가지 영역에서 그 말씀을 이해한다. 우선, 이 땅에서의

되어 있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것을 해놓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가 없어서이다. 나는 매우 건강하지만 주님이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되어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곳에 재소자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린다면 출판해야 할 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대비하여 나는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TPPM으로 어느 부분은 양도되도록 유서를 써놓았다. 현재 자금이 부족해서 비록 내가 출판할 수 없을지라도 미래에 TPPM에서 누군가가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나의 유서는 나의 뜻을 이루어줄 TPPM 이사회 지인에게 이미 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여한이 없다. 내 주위에는 내가 떠나도 교도소 문서선교에 헌신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2005년, TPPM이 설립된 이래로 이제까지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다. 나는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yonghui.mcdonald@gmail.com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되어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 그 금액은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훨씬 이상이었다. 사람들은 보험금을 피의 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성경은 피가 곧 생명의 상징임을 말한다. 나의 남편은 피 값을 지불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

때문이다. 최근에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른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남편의 보험금을 안락하게 보장된 나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 공간 안에 갇혀서 울부짖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쓸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이 글쓰기를 멈추면 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주님은 다른 주제로 계속적으로 글을 쓰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는가? 결국 나는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으며 열심히 책을 준비한다. 주님은 만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 번 이상 같은 상담을 해야 한다면 그것을 책으로 써서 더 많은

나의 삶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으니 준비를 하라는 말씀일 것이며, 두 번째로는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도와야 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말씀일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내가 떠난 후에도 모든 책들이 다 출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나는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12강 / 야곱(2)(창27-35장)

'부르심' 받는 야곱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도망자가 되어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이 사는 지역 하란으로 갑니다(창28:10). 그는 해가 저서 유숙한 곳에서 잠을 자다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28:13-15).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었듯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둘째, 야곱의 자손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인데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살피본 것처럼 육신의 자손들의 육적 확장이 아닌 영적 자녀들의 영적 확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 역시도 복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복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 지키실 것이고 야곱을 이끄시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특별한 존재이거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닌 아

브라함으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이삭을 거쳐 야곱으로 흘러 마침내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는 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창28:20-22).

야곱의 서원은 한 마디로 '하나님이 저를 잘 먹이고 입히시고 잘 보호해주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겠습시다'인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의 '전행'적인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가 아닌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를 위해 하나님까지도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아직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 죄인의 삶'을

사는 야곱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과 야곱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미 '벨엘에서 서원'할 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삶의 변화는 그리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그리고 인도하심은 야곱과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도 끊이지 않는 불평과 원망 속에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한 것과 같습니다(출

13:17-22, 40:34-38/민9:15-23).

칠 년을 며칠 같이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라반의 작은 딸인 라헬과 사랑에 빠집니다(창29:10-20). 얼마나 서로 사랑했던지 품삯을 대신해서 일하기로 한 기간 7년을 순식간에 보내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세상의 복을 위해 그 축복을 받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서 속이고 또 속인 야곱이 너무 잘되는 것입니다. 평생 처음 간 길을 준비된 안내자들로 인해(창29:4-6) 강도의 위험도 없이 도착하여 바로 사랑하고 했을 여인을 만나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불공평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

다. 이 행복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아닌 더 큰 징계로 넘어가기 전에 주어진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토설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지만 인간은 절대로 죽을 만큼 맞지 않으면 그 죄의 실상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토해내지도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니까

라헬과의 7년의 행복한 시

탄식은 야곱의 아들들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창42:28).

하나님의 숨통 조이기

이제부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숨통 조이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숨통 조이는 야곱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닌 '세상에 속한 야곱'을 '하나님께 속한 야곱'으로 세우기 위한 사랑입니다. 단지 야곱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첫째, 본의 아니게 부인이 2명이 되었는데 정작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레아만 아들 4명,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창29:31-35). 지켜보는 라헬도 죽을 맞이하지만 아들들을 낳으면서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도 죽을 맞이합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야곱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그의 언니로 아들 4명을 낳았음에도 야곱의 마음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분은 여종이지만 라헬도 낳지 못하는 아들들을 뉘척이나 낳은 여종들이며 부인인 빌화와 실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가졌을 '긴장'과 아들 8명의 보이지 않는 '경쟁'은 야곱의 삶을 무척이나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정도면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시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숨통을 조이고 계신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받지 못한 것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야곱은 '편안'할 수도 '편안'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언니가 아들 4명을 낳을 동안 자식을 1명도 못 낳은 라헬은 자기의 여종 빌화를 야곱과 동침시키는 사라와 같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화를 내지만 아내를 이기는 남편 없으니 결국 라헬 딸대로 합니다. 아담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으며 야곱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곱은 라헬의 종 빌화를 통해 아들 2명,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부인 아닌 부인이 3명이 됩니다(창30:1-8). 그러자 언니 레아가 지지 않습니다. 여종 실바를 야곱과 동침시킴으로 아들 2명,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 부인 아닌 부인이 이제 4명이 되었습니다(창30:9-13).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여전히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 무엇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위한 그 세상의 복 쟁기기에 여념이 없는 야곱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 벨엘로 불러올리시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로 끌어다 놓고야 마실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야곱의 삶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yahoo.com

월 성전에 있는 예수님(눅2:41-51)찬319장

누가는 예수의 소년시절을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성전에 있는 예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와 주고받는 대화로서 그의 지혜를 보였습니다. 이 일로 주변 사람과 부모는 그 지혜에 놀랐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장했습니다. 부모의 상식적인 질문에 그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여 자신의 성자됨을 최초로 증거했습니다. 셋째, 그는 신인양성을 가진 메시아 이심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연합은 성부와 일체됨을 증거함으로써 성부의 낮아지심을 증거했습니다.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산 교제를 힘습시다.

화 예수 성장의 요약(눅2:52)찬205장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의사 누가는 사중적으로 그의 성장을 관찰합니다. 첫째, 육체적 발달이 있었습니다. 인성을 가진 자로서의 발육과정을 보였습니다. 둘째, 지혜의 성장을 가졌습니다. 모든 방면에 신인양성을 사건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셋째, 사람들에게 인

정을 받으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사회적 관계에 특이하셨음을 보입니다. 넷째,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원활함을 보였습니다. 이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이고 힘의 원천임을 강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린 우리는 말씀을 잘 받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골2:6-7).

수 하나님의 일의 시작(눅 3:1-17)찬352장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말씀하시는 분이 시작됩니다(2). 종들은 말씀이 임할 때 그의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에게 개별적으로 임함은 모든 사역자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둘째, 이것은 사명을 위한 소명입니다. 소명(부르심)으로 종들은 자신의 할 일을 결정하며 충성할 대상을 바로 알게 됩니다. 셋째, 그 일은 성령의 임

함으로 입증합니다. 말씀의 임함은 성령의 임함과 같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여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강림과 요한에게 임한 말씀은 본질상 같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함으로 성령의 기이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목 회개의 열매(눅3:1-17)찬308장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세례를 증거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시켰습니다. 무엇이 회개의 열매인가요?(8) 첫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감입니다(행20:20). 자기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당한 열매 곧, 생활의 변

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반성이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의 삶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동기와 방법이 전적으로 주의 손으로 되어집니다. 셋째, 그러므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을 얻는 회개, 생활의 근본을 바꾸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금 약속된 능력(눅3:1-14)찬173장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내 것으로 소유할까요? 첫째, 빈틈에 있는 요한처럼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능력을 부으시는 엘리야의 예언일지라도 구체적인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성경이 모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내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진실히 서야 합니다

다. 둘째, 고정관념을 깨고 겸손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고정관념은 위험합니다(8). 과거의 경력, 현재의 호조건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 시대에 참 회개와 믿음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토 신약 교회의 본(눅3:18-20)찬214장

누가는 요한의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하나님 나라 길잡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인 요한은 신약의 모든 사역자들의 본입니다. 첫째, 그는 사명자로 엘리야처럼 경건으로 연단된 하나님의 사명의 인격을 갖추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설교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사

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둘째, 그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성령 세례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기에 동참한 우리 역시 경건으로 무장하여 이 복음을 전합니다(고전 12:13).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4)

자녀들에게 올바른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의무

이제 다니엘 6장으로 넘어가 본다. 사실 성경 총 1,189장중에 가장 인기 있는 장중의 하나가 바로 다니엘 6장일 것이다. 주일학교시간에 거의 빠지지 않고 회자되는 바로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던져졌지만 드라마틱하게 살아난다는 이야기이다.

예전에 설명했듯이 다니엘은 바벨론 느브갓네살 왕 이후 공직에서 떠나 있다가 바빌론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 고레스 왕에 의해 다시 한번 수석총리로 임명되 된다.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은 같은 사람이며, 역사가 Archer에 따르면 다리오는 왕의 타이틀이라고 보았다(마치 로마황제를 시저라고 하고 애굽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초반이었을 거라고 추측한다. 이미 은퇴를 하고도 남을 백발이 성성한 이방인 노인을 다리오 왕은 왜 중용했을까? 단6:3에 중요한 힌트를 찾게 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했다"(distinguished himself)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즉 다니엘은 최고의 학식과 영리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대학교수들 중 어떤 분야의 최고봉에 이른 사람들을 우리는 석좌교수(Distinguished professor)라고 한다.

과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단6:4).

그렇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막으로 다니엘의 믿음생활을 공격한다. 다니엘 몰래 그들은 왕을 만났고 조서를 발표하게 한다. 곧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곧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는(단6:7) 조서였다. 여기서 다니엘은 일생 최대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는 이때 혼자였다. 그의 세 친구들은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는다. 아마 연로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심지어 다리오 왕 역시 조서가 이미 공포된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절체 절명의 순간이었다.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위기의 순간이 오자 그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루 3번 기도하던 다니엘은 습관의 힘으로 위기 앞에 감사해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찬송 봉사하는 습관 길러줘야

다니엘은 그의 학식과 지식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말이다. 그 뿐인가? 그에게는 최고의 영성(extraordinary spirit)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성경(KJV)은 기록한다. 그는 지식뿐 아니라 자질, 소양이 당시 모든 리더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다시 말하면 영성, 지성,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서 그는 당대 최고였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 하나가 있다. 크리스천들은 모든 부분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사회에서 출세하면 안 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그것이 사실인양 취급한다. 즉 믿음과 출세를 적대적인 관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사회에서 성공과 잘 되는 것을 원하신다. 바로 다니엘처럼 말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뛰어나고 학식으로도 충만해서 이 세상의 리더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다니엘은 정말 털어 던진 하나 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공격은 믿음 있는 사람을 모함하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인데 당시 다니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다. 당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살살이 뒤졌다. 그러나 그 결

필자가 성경을 통하여 가장 감명 받은 구절이 바로 다니엘 6:10 말씀이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 단어에 주목하자.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감사하였더라." 그는 왕의 조서가 곧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대항하지 않았고,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으며, 변명하거나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 생각해보자. 조서는 한 달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한 달 동안 다니엘은 지방순시를 떠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 달 동안 그는 사람들이 보지 않게 문을 잠그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한 달만 조용히 지나가면 그대로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평소 하던 대로 똑같이 행했다. 문을 열어 놓고 무릎을 꿇고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자세로 기도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던 말인가?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과연 감사의 단어가 그의 입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는 달랐다. 그래서 필자는 그를 초지일관, 표리일체, 시종여일의 대명사로 부른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내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저자 김종환 목사(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날 때부터 맡긴 바 되었고”

달라스침례대학교(Dallas Baptist University) 신학대학 부학장이며 기독교교육학 교수인 김종환 목사(달라스 뉴송교회 협동)의 저서 “날 때부터 맡긴 바 되었고”가 본지 문화출판사인 히스핑거에서 최근 출간됐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민자의 자녀양육”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저자가 2016년부터 텍사스 중앙일보에 매월 연재했던 칼럼 61편을 한 권으로 묶은 ‘이민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이야기다.

한국인들의 이민 이유 중에 자녀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러나 막상 이민자로서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다. 저자 자신도 미국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 덕분이었다고 고백한다.

추천서에서도 “이 책을 통해 1세 부모가 2세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어 줬다”(와이키키한인교회 강성호 목사), “자녀교육의 지점이자 부모들의 자아성찰을 위한 거울이다”(살롬침례교회 김영하 목사), “어린 자녀뿐 아니라 성인 자녀를 둔 이민자 부모들과 기독교 교육 종사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센트럴침례신학대학원 존박 교수), “주제의 다양함은 지적 외연의 확장을 주고 성경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실제적 적용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탁월함이 있다”(한마음교회

장 이민자녀의 신앙, 8장 이민자의 삶 등으로 나눠 각 장마다 5-14개의 이야기들을 실었다. 또 부록으로 이민자의 자녀양육에 연관된 성경 말씀을 소개했다.

김종환 목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다윗처럼 이민자들도 자녀들에게 확실히 가르치기를 권하며, “앞으로 우리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환경이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이민부모들이 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민자의 자녀양육”

하중수 목사) 등의 지지를 받았다.

책은 1장 이민생활의 문화 체험, 2장 미국의 절기, 3장 이민자의 자녀양육 방법, 4장 이민부모의 책임과 역할, 5장 이민자녀의 학업과 학교생활, 6장 이민자녀의 자세와 행동, 7

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라고 전했다.

책은 미국내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권당 19.95달러. ▲저자 연락처: jonk@dbu.edu (유원정 기자)

책 소개

저자 오운철 목사

“기도, 영광스러운 초대”

새생명비전교회 오운철 행정목사의 저서 ‘기도, 영광스러운 초대’가 비전북에서 출간됐다. 본도서의 저자 오운철 목사는 “기도는 놀라운 일이

나누시려는 초대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1부 영광스러운 초대 △2부 영광스러운 습관 △3부 영광스러운 열매라는

가 무엇인지 정의하려 했다. 2부는 기도의 실천을 다루었으며 습관으로서의 기도를 실천의 방법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기도를 통해 맺게 되는 영광스러운 열매에 대해 썼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빛나게 할 천국전치 청첩장 “기도, 영광스러운 초대”는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기도의 정의, 실천, 열매 설명

며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야기를

주제로 총 23장으로 엮여졌다. 오운철 목사는 “1부는 기도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무엇이 그를 위기의 순간에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그건 습관의 힘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세 번씩 기도하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는 80여년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Charles Duhigg는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 평소의 습관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역설하고 있다.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이유도 그는 어릴 때부터 믿음이 그 속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딤후 1:5-6).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된 이유도 그가 기도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행해왔기 때문이었다(삼상12:23).

예수님의 습관을 생각해보자. 그분은 습관을 좇아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눅 22:39).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성경을 읽으셨다(눅4:16). 그분은 늘 하시던 대로 무리를 만나 가르치셨다

(막10:1).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습관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도록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을 가르치자. 어릴 때부터 남을 부지런히 섬기도록 하는 습관, 예를 들면 사랑으로 교제하는 습관,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습관, 헌금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는 습관 등을 가르치자. 다니엘 6장의 이야기는 다음 호에서도 계속된다. hlee0414@gmail.com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38.가정선교는 십자가 도(道)의 완성이다

십자가(구원)의 도(道)를 이루는(완성)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 하나님 사랑’ (상경, 上敬)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 (하애, 下愛)하는 상경하애(上敬下愛)를 하는 것과 둘째는 가정선교(Family Mission)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1. 상경하애(上敬下愛)는 십자가 도(道)의 완성

마태복음 22장 34-40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율법 중에

즉 대신(對神)관계, 수직관계를 말함이며, 아래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나와 이웃의 관계, 즉 대인(對人)관계, 수평관계를 말함입니다. 이웃 사랑의 수평관계 없이 하나님 사랑의 수직관계만 있다면 막대기를 잡고 휘두르는 위험한 관계이고, 하나님 사랑의 수직관계 없이 이웃 사랑의 수평관계만 있다면 구원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불안정한 관계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의 대신, 수직, 상경(上敬)관계와 아래로 ‘이웃사랑’의 대인, 수평, 하애(下愛)관계가 함께 이루

教, Generation Mission), 즉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교, 즉 가정 선교입니다.

세대선교, 수직선교, 곧 가정선교(Family Mission)이 살아야 지역선교, 수평선교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수직선교인 가정선교의 축을 놓치고 가정선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대선교, 수직선교, 즉 가정선교의 축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수평선교인 지역선교로 지역사회와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선교의 원동력이 될 것이기

상경하애와 가정선교는 십자가 도의 완성이다

어는 계명이 크나이까?”라고 하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상경하애(上敬下愛)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신6:5)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 최대의 계명인데, 그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네 몸같이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어질 때 비로소 영혼구원의 십자가의 도(道)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2. 가정선교는 십자가 도(道)의 완성

가정선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선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선교입니다. ‘예루살렘(지역)과 온 유대(국가)와 사 마리아(특수선교)와 땅 끝(세계)까지’ 지역을 넓혀 가는 지역선교입니다. 이 지역선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교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교는 수직선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에서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까지 이어 지는 세대선교(世代宣

때문입니다.

가정중심의 세대선교, 수직선교만 있고 교회중심의 지역선교와 수평선교가 없어도 안 되고, 교회중심의 지역선교, 수평선교만 있고 가정중심의 세대선교, 수직선교가 없어도 불안정한 선교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므로, 세대선교, 수직선교, 가정선교와 지역선교, 수평선교가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선교 영혼구원의 십자가의 도(道)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세워 전 세계를 구원하시길 원했듯이 먼저 믿는 믿음의 가정을 회복, 복음화 시켜 지역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복음화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과 교회를 축으로 세대선교와 지역선교가 함께 이루어져 십자가의 도가 완성됨이 가정선교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 714-0691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1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p>믿음과 0.2%의 가능성 김영길 클린출판사</p>	<p>돌파하는 믿음 밥 소르기 스텝톤</p>	<p>간절한 매달림 토미 테니 규장</p>	<p>세상이 흉내낼수 없는 기독교 제러드 윌슨 생명의 말씀사</p>	<p>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피터 스카지르 두란노</p>
-------	--	------------------------------	---------------------------------	---	---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북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선교부흥과 영성 회복을 위한

대뉴욕지구

2021
할렐루야
로큰롤

복음화 대회

Hallelujah Greater New York Evangelization Conference

강사

양창근 선교사

9.11(토)-12(주일)

토요일 7:30PM, 주일 5:00PM

장소: 뉴욕장로교회 (김학진 목사 시무)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대회장

문석호 목사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

부대회장

김희복 목사

백달영 장로

이춘범 장로

목회자 세미나

- 일시: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뉴욕대한교회 (김전 목사 시무)
3501 150th Pl,
Flushing, NY 11354

차량 운행 안내

- 시간: 집회 시작 1시간 전, 30분 전 출발
- 출발장소: 한양마트, 공영주차장, 베이사이드 삼원각

*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가운데 대회가 진행됩니다.

• YouTube 온라인 생방송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st Ave. Little Neck, NY 11362 | Tel. 718-279-1414 Fax. 718-279-5838
Email: nyckcg@gmail.com, www.nyckcg.org